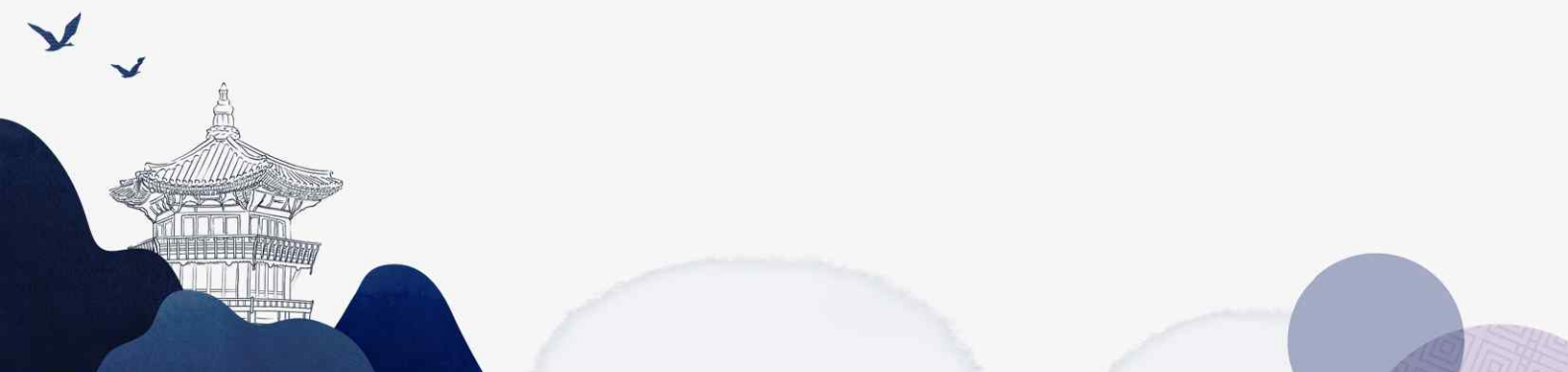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9
4	讲义	60
5	퀴즈	85
6	토론	90
7	자료	92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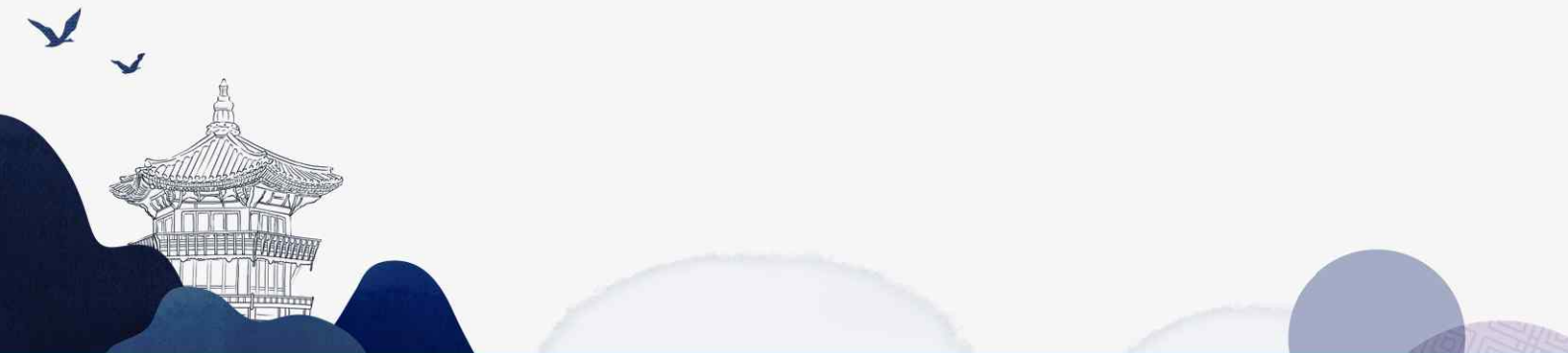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9

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9-1

《만국사물기원역사》는 어떤 책인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만국사물역사》의 강의를 맡은 황재문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홉 번째 강의로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세기 초에 간행된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제목을 통해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책의 제목은 '만국-사물 기원-역사'라는 몇 가지 용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국 즉,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을 앞세웠습니다.

사물의 기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물이란 일[事]과 물건[物]을 합쳐서 일컫는 말인데, 결국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셈입니다. 주변의 온갖 것들의 기원을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라고 했으니, 시간적인 질서에 따라 서술하겠다고 말한 셈입니다.

이제 《만국사물기원역사》가 어떤 책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국사물기원역사》의 표지와 판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는 책의 제목과 함께 '송양산인 장지연'이라는 저자 표기, '황성신문사'라는 발행처 표기가 보입니다. 판권지를 보시면 책의 정가와 함께 '융희 3년 5월 20일'의 인쇄일과 '융희 3년 8월 15일'의 발행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융희 3년은 1909년입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시점은 전통적인 문화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 즉 외래의 지식과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전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뒤섞여 있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간행된 책이라는 점을 우선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점과 발행 시점 사이에 약 3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이 기간에 검열과 부분적인 수정이 이뤄졌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지와 판권지에 표기된 저자 장지연은 어떤 인물일까요? 왼쪽은 표지와 같은 문구를 담은 《만국사물기원역사》의 내지(內紙)이며, 오른쪽은 장지연의 모습입니다. 장지연은 1864년에 경상도 상주에서 태어나서 전통적인 학문과 한문 문장을 학습합니다.

아관파천 이후에는 고종의 환궁을 청하는 <만인소>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후 사려소 직원으로 황제국으로서의 예법을 마련하는 《대한예전》의 편찬에 참여하고, 1902년에는 《황성신문》의 사장이 됩니다. 즉 전통적인 학문과 문장으로 인정받고서 근대적인 언론 활동에 참여한 인물인 셈입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라는 책은 왜 간행했는가? 책을 간행할 때는 보통 간행의 목적이나 경위를 밝히는 글을 써서 책의 앞이나 뒤에 붙입니다. 앞에 붙이는 글을 서문이라고 하고, 뒤에 붙이는 글을 발문이라고 불러서 구별하기도 하는데, 서문 혹은 발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만국사물기원역사》에는 서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행의 목적을 짐작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신문의 광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황성신문사에서 간행했기 때문인지, 《황성신문》에는 이 책의 광고가 1909년과 1910년에 지속적으로 실리게 됩니다. 여기에 제시한 두 가지 유형의 광고가 확인되는데,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광고 문안은 같습니다.

광고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위는 광고 문안을 원문대로 옮긴 것이고, 아래는 광고의 핵심적인 정보를 현대어로 풀이한 것입니다. '동서양 만국에서 고금의 사물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의 이름, 연대, 연혁의 역사'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곧 '박학광지'의 자료이니, 책을 펼치면 독자는 천고의 사물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자는 누구일까요? 광고에서는 책의 예상 독자로 신사, 교육가, 연설가, 신문기자, 학생을 나열했는데, 지식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광고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류수집'했다는 말입니다.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료를 모아 제시한다는 것은, 곧 근대의 백과사전이나 전근대 동아시아의 유사(類書)가 지닌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 책이 지닌 형식적인 특징이나 역사적 맥락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책은 아니지만,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학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백과사전 또는 유서의 관점에서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백과사전 가운데 최초의 출판물이라는 점과, '서양'과 '우리'에 대한 지식을 함께 다룬 저술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지봉유설》처럼 전근대 유서 가운데 출판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대적 백과사전에 가까운 문헌이 출판된 예는 이 책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 '서양'과 '우리'에 대한 지식을 따로 다루었던 저술은 찾아볼 수 있지만, 둘을 대비하면서 함께 다룬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역사서의 관점에서 이 책이 독자적인 세계사 저술의 등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 바 있습니다. 세계사 저술은 일본이나 중국의 번역본을 통해 서양의 역사서를 중역(重譯)함으로써 출판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서술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독자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저술 과정을 점검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서술된 내용에 주목한다면, 동시대의 다른 문헌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지식'을 담은 '특이한 문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국사물기원역사》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서정-서사-희곡'이라는 문학 갈래의 삼분법, 그리고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이 책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저자가 유학생이나 서양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식인이라는 점이 다소 부자연스럽게도 느껴지지만, 책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지식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양 과학 및 문화를 많이 소개했는데, 일기예보나 로마의 소설, 잠수종과 같은 잠수 기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다른 문헌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전골의 유래가 그러한 사례입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소개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원문인데, 세로쓰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현대어에 맞게 고치고, 한자로 표기된 인명을 오늘날 통용되는 표기로 바꾸면 위와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와 같이 간략한 설명을 붙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특별한 내용이라고 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1909년에 전통적 학문 배경을 지닌 지식인이 쓴 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책 전체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8장 498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서'의 구성과 유사합니다. 주제에 따라 대항목을 나누고, 그 아래에 하위 항목을 설정하여 항목 별로 서술하는 '유편유서'의 구성 방식을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장 및 세부 항목의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각자 원문의 표기에 따라 장과 항목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서 책의 내용을 스스로 짐작해 보기 바랍니다.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단어에는 []안에 현대어 풀이를 붙였습니다. 먼저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구성입니다. 이 가운데 9장의 '의장'은 의례에 사용하는 기구를 뜻하는 말인데, 이 장에서는 특이하게도 동양의 사례만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13장부터 18장까지의 구성입니다. 복식은 의복입니다.

다음은 19장부터 23장까지의 구성입니다. 21장 음악과 22장 기계에서는 항목을 통해 동서양의 사물이 함께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3장의 '기용'은 각종 생활 도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량형'을 제일 앞에 내세웠는데, 이 항목에서는 자나 저울과 같은 동서양 측량 도구의 역사와 그 단위를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장부터 28장까지의 구성입니다. 28장의 '풍속잡제'는 풍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만국사물기원역사》가 어떤 책이며, 어떤 이유에서 주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장과 항목을 정리한 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전근대의 '유서'와 가까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자 장지연의 저술 활동과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 장지연의 저술 활동과 《만국사물기원역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가 어떤 책이며, 어떤 이유에서 주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자 장지연의 저술 활동과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장지연의 저술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만국사물기원역사》를 편찬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장지연이 '전통적인 학문과 문장으로 인정받고서 근대적인 언론 활동에 참여한 인물'이라고 간략히 정리했습니다만, 장지연은 다양한 종류의 글을 발표하고 책을 간행했던 인물입니다. 9,7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전집이 간행되었음에도 제목만 전하거나 전집에 수록되지 못한 저술이 있다고 언급될 정도로, 많은 분량의 글을 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장지연의 저술 활동을 점검해 가면서 《만국사물기원역사》가 차지하는 위치를 검토하고 저술의 동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연은 문장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장지연은 시인, 학자, 작가, 관료, 교육자, 언론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지만, 이런 활동들은 모두 '문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근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지연이 언론사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야말로 다작의 배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지연은 1902년에 황성신문사 사장에 취임합니다. 이에 앞서 주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장지연이 황성신문사를 떠나게 되는 계기는 1905년에 쓴 논설입니다. 11월 20일자 신문에 발표한 <시일야방성대곡> 즉 '이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이 논설은,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명문장입니다.

이 논설로 인해 《황성신문》은 정간되고, 장지연은 신문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학회와 해외 및 지방의 신문사에서 활동하기는 하지만, 이전과 같은 '안정적인' 저술 활동의 기반은 잃게 된 것입니다.



<시일야방성대곡>을 썼던 장지연이 식민지기에 이르러 절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글을 썼고, 오늘날에도 참고할 만한 책을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총독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매일신보사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게 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장지연은 정식 기자가 아닌 '객경'의 자격으로 《매일신보》에 글을 쓰기로 하는데, 1914년 12월의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당시로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따져볼 문제가 적지 않지만, 저술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저술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저술을 중심으로 장지연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10년 이전의 활동입니다.

장지연은 <만인소>로 명성을 얻은 이후 사려소 직원으로서 《대한예전》의 편찬에 참여합니다. 대한제국은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전례를 갖추어야 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후에는 《증보문헌비고》의 편찬에도 참여합니다.

《증보문헌비고》는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문헌인데, 영조 대에 편찬되었던 《동국문헌비고》를 증보하는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1903년에 찬집청이 설치되어 편찬이 시작되었고, 1908년에 책의 간행이 이뤄집니다.

《황성신문》을 비롯한 신문에 글을 쓴 것은 앞서 말한 바 있습니다만, 황성신문사를 떠난 이후에는 대한자강회 등의 학회에 가담하여 학회지에 많은 글을 쓰게 됩니다. 또한 1907년 전후에는 다수의 단행본을 간행하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휘문의숙에 관여하면서 편찬한 교과서입니다. 휘문의숙에서 편찬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인 《여자독본》이나 '신소설'이라고 명시한 한글 번안소설인 《애국부인전》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1914년 매일신보사의 '객경'으로 활동하면서, 장지연은 다시 활발한 저술 활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에 앞서 《경남일보》에도 글을 쓰지만,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1915년에 펼쳐진 다카하시 도루와의 논쟁은 이후의 저술 활동의 방향을 정하는 것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선유교연원》, 《일사유사》, 《대동시선》과 같이 오늘날에도 참고가 되는 책들을 이 시기에 편찬하게 되는데, 이 저술들은 《매일신보》에 직접 연재했거나 매일신보사로부터 자료 수집 또는 홍보에 관한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저술들이 《만국사물기원역사》와는 달리 '우리'의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장지연의 저술 활동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한국의 역사, 문화, 지리를 서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한국학'의 영역에서 주목받았던 저술들은 거의 언급한 듯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의 주제인 《만국사물기원역사》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고, 거의 같은 때에 저술된 책들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가 간행된 1909년 전후는, 장지연이 황성신문사를 떠났고 매일신보사와는 관계를 맺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한편 장지연은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간행 이전의 몇 년 사이에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외 체험이 그것입니다. 1905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민영기가 이끄는 일본시찰단에 참여하여 궁내성, 신문사, 조폐국, 은행, 제지소, 인쇄국 등을 방문하고, 유학생을 비롯하여 동학 관련 인사 등 일본에 체류 중인 인물들과 면담합니다. 특히 7월 30일에는 박물관에서 광개토왕비문을 관람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광개토왕비문을 국내 신문에 소개하게 됩니다.

1908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신문사인 해조신문사에 주필로 초빙됩니다. 1905년 11월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인해 황성신문사를 떠난 이후에, 장지연은 학회에 관여하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활발한 언론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해조신문사의 초빙을 받은 장지연은, 1908년 1월에 출발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게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3월 2일에 처음으로 '신문의독론', 즉 신문을 마땅히 읽어야 한다는 뜻의 논설을 씁는데, 장지연은 일기에서 국문 전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기 어려웠다는 감상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장지연은 현지 인사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해조신문사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생활을 이어가지만, 결국 신문이 폐간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게 됩니다. 장지연은 바로 귀국하지 않고 상하이로 경유하는데, 이때 상하이에서 현지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광지, 상무, 문명 등의 서국들을 방문하고 책을 구입합니다. 당시 동아시아 지식 유통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던 상하이에서 발간되고 유통되던 책을 직접 열람하고 입수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지연은 1908년 9월에 상하이로 건너 귀국합니다. 귀국 이후 잠시 조사를 받고 풀려나지만, 이전보다 활동의 제약은 더 심해집니다. 물론 스스로 더 주의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듬해인 1909년에 이르면, 장지연은 상당히 많은 양의 저술을 하게 됩니다. 장지연이 스스로 편찬한 <연보>에 의하면, 1909년에는 <교남학회취지문>을 비롯한 10편의 글을 쓰고, 《만국사물기원역사》를 비롯한 5종의 책을 편찬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글과 책은 분량 또한 적지 않으니, 장지연이 이 시기에 집중적인 집필 활동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보>에 기록된 책이 저술 활동의 전부는 아닌 듯합니다. 당시의 신문에는 장지연이 쓴 4종의 책에 대한 광고가 발견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인 《회중신경》이라는 책은 <연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회중신경》은 일종의 다이어리형 수첩인데, 앞과 뒤에는 절기표나 지리 정보, 교통 운임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붙였습니다. 날짜별로 인쇄된 다이어리 본문 옆에는 작은 글씨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해당 날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일종의 ‘오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리 작업도 적지 않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으리라 짐작되는데, 장지연은 1908년과 1909년에 황성신문사에서 《회중신경》을 발간합니다. 《회중신경》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2014년에 발표한 <1908년~1909년 장지연의 저술 활동과 그 의의>라는 논문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이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장지연은 귀국 이후 더욱 집필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은 장지연이 스스로 쓴 <연보>의 1909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지연은 1909년에 10여 편의 글과 최소 5종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완성한 것이 《만국사물기원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보>에서는 3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5월에 마쳤다고 기록했는데, 아마도 편찬을 위한 자료 정리 등의 준비 과정은 그보다 길었을 것입니다.





장지연은 1908년 9월에 귀국하여, 1909년 10월에 경남일보 주필로 초빙되기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여러 편의 저술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간행된 것도 있고 원고 상태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현재 전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책도 있습니다. 간행된 책인 《만국사물기원역사》, 《접목신법》, 《소채재배 전서》, 그리고 원고본인 《화원지》는 장지연의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실물을 살펴보면 모두 상당한 분량이며 편찬 과정에 저자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해외 체험이나, 이전의 언론 활동 및 관찬 서적 편찬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문헌을 참고하여 서술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전에 쓴 책들과 비교한다면, 정치적인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자 장지연의 저술 활동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만국사물기원역사》편찬과 관련하여 해외 체험 및 귀국 이후의 집필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강생 여러분은 《만국사물기원역사》가 장지연의 저술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자체에 초점을 맞춰, 저술 배경 가운데 외래적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배경 : 외래적 요소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자 장지연의 저술 활동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만국사물기원역사》편찬과 관련하여 해외 체험 및 귀국 이후의 집필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자체에 초점을 맞춰, 저술 배경 가운데 외래적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만국사물기원역사》가 어떤 책이며, 현재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자 장지연의 저술 활동 속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술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외래적 요소들을 거론하기에 앞서, 먼저 저자 장지연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내용, 특히 특이한 지식의 존재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지닌 외래 문헌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문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저자의 역할이 단순한 번역자인지,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편찬자인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책의 의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저자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독자적인 세계사 저술의 등장’이라는 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저자 장지연이 학습을 통해 지식을 쌓고 그것을 독자적인 저술로 구현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장지연은 유학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국어 해독 능력이 부족한 전통적 지식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박학풍(博學風)’의 학풍을 지녔다고 평가되기는 하지만, 그 박학의 영역은 동아시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그의 학풍만으로는 이 책에서 다룬 새로운 지식들을 어떻게 습득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찍부터 이 책이 중역(重譯)된 것은 아닐지 의심되기도 했습니다. 서양 문헌을 중국 혹은 일본에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한국에서 재번역하는 방식의 중역은 당시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경우에는 역술(譯述) 즉 중역을 포함한 번역의 방식으로 저술했다고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498항목 가운데 상당수의 항목에서 서양의 사례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사례를 함께 서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 중국이나 일본, 또는 서양에 이와 같은 문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책 전체를 살펴보면 같은 대상에 대한 한자 표기, 특히 인명이나 지명의 표기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같은 사건을 다른 항목에서 다시 서술하는 중복 서술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 고유명사의 한자 표기가 달라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원본에 가까운 참고 문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가 아닌 여러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특정한 문헌을 옮긴 역술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역술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복수의 고유명사 표기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 소논문을 쓰면서 이러한 사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더 찾았습지만, 중요한 사례들은 여기서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쉘스턴이나 에디슨의 경우에는 다른 인명의 표기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만, 나머지 사례들 즉 마젤란, 갈릴레이, 헤르도트스, 아브라함, 야곱, 아시리아, 아라비아,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같은 대상을 표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하나의 책을 옮기는 방식으로 '역술'했다면,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2년의 소논문에서 제가 주목했던 책은 니시무라 시게키가 1879년에 쓴 《서국사물기원》입니다. 니시무라 시게키는 일본의 난학자로, 메이로쿠사라는 학술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메이로쿠사 참여 인사 가운데는 비교적 선배 세대에 속하며, 이후에는 동서 철학의 융합을 주장하고 수신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국사물기원》에서는 《만국사물기원역사》에 언급된 '사물의 기원'을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내용뿐 아니라 표현까지 유사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규모를 살펴보면 《서국사물기원》은 38장 412항목을 수록하였는데, 분량은 490면에 이릅니다. 《서국사물기원》의 항목당 서술 분량은 《만국사물기원역사》보다 많은데, 때로는 사물의 기원을 넘어서서 현재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특정한 광물이나 식물의 항목에서 사람이 그것을 처음 이용하게 된 ‘기원’을 말하고서, 현재 특정한 지역에서 많이 나고 특정한 쓰임새가 있다는 등의 설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물론 책의 제목처럼 서국 즉 서양의 사례만을 다루고 있으니, 동양 사물까지 거론하는 《만국사물기원역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시무라는 책의 서문에서 서양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인용한 서양 문헌은 무려 10여 부이지만, 번거롭게 하나하나 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는다. 그 가운데 많이 인용한 것은 네덜란드 사람 오스테루제가 쓴 《백물원시》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스테루제’는 한자 표기 옆에 니시무라가 붙인 발음입니다. 난학자인 니시무라가 네덜란드 문헌에서 지식을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오스테루제가 쓴 《백물원시》란 어떤 책일까요? 최근에 최정훈 선생은 이 책이 헨드릭 마리누스 크리스티안 반 오스테루제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1850년에 쓴 소형 백과사전임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책의 제목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사물들의 기원을 다룬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실물을 보면 오늘날의 사전처럼 알파벳 순서로 항목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항목의 배열순서나 서술 방식이 니시무라의 《서국사물기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니시무라는 이 책의 내용을 번역하기보다는 ‘참고’했을 것입니다.

《서국사물기원》은 현재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식민지기에 이미 한반도에 유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지연은 이 책을 읽거나 활용했을까요?

책을 잠시 살펴봅시다. 표지에는 저자, 제목, 간년(刊年)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목록’은 《만국사물기원역사》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작성되었는데, 세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두 책은 장의 구성이 다르기도 하지만, 《만국사물기원역사》의 항목 수가 더 많습니다. 또 같은 사건이나 사물이라도 항목 명칭이 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은 상당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1장 천시(天時)의 첫 항목은 행성인데, 《만국사물기원역사》의 1장 천문(天文)의 첫 항목은 태극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장지연이 이 책을 직접 참고하여 《만국사물기원역사》를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한자 표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유사한 항목에서 거의 같은 사건 혹은 사물을 서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장지연은 고유명사 표기에 《서국사물기원》과는 다른 한자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지연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인 참고 문헌으로 《서국사물기원》을 거론할 수는 없는 셈인데, 그렇기는 하지만 내용에서 보이는 유사성이 우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장지연이 참고한 책이 《서국사물기원》이 아니라면, 이 책을 참고하여 쓴 책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시부에 다모쓰가 1894년에 쓴 《서양사물기원》은 《서국사물기원》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만국사물기원역사》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부에 다모쓰는 일본의 번역가이자 작가인데, 그가 쓴 책 가운데 당시 한국에서 번역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서양 역사에 관한 저술이 많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서양사물기원》은 박문관의 ‘촌진백종’ 즉 짤막하지만 귀중한 100가지 책이라는 시리즈의 46번째 책으로 간행되었는데, 표지에 책 제목과 함께 시리즈 명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지연은 시부에의 책을 참고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부에는 고유명사를 주로 가타카나로 표기하였고, 일부에만 한자 표기를 병행하였습니다. 장지연이 가타카나 표기를 한자 표기로 바꾸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시부에 다모쓰의 《서양사물기원》은 얼마 뒤인 1902년에 중국에서 번역됩니다. 광지서국에서 ‘태서사물기원’이라는 제목을 붙여 출판하고, 얼마 뒤에는 다른 출판사에서도 번역하여 간행합니다. ‘광지서국’은 앞서 장지연이 상하이에서 들렀다고 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장지연이 일기에서 《태서사물기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09년에 광지서국에 들렀을 때 출판물들에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서사물기원》의 목차와 본문을 살펴봅시다. 니시무라의 책보다는 《만국사물기원역사》와 가깝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한자 표기의 유사성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태서사물기원》이나 그 원본인 시부에의 《서양사물기원》이 《만국사물기원역사》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양의 사물에 한정한 저술이기 때문입니다.



《태서사물기원》을 참고하여 《만국사물기원역사》의 편찬이 이뤄졌다고 가정하고서 둘을 비교해 보면, 장지연은 23장을 28장으로 바꾸고 최소 277항목을 추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은 분할 하거나 재배치하고, 일부 항목은 삭제하거나 추가했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항목을 다른 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시부예의 《서양사물기원》을 번역한 《태서사물기원》의 '분류'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지연이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추가한 항목은 주로 '동양의 사물'을 서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2018년에 발표한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성립 과정에 대한 재검토>에서는 두 문헌의 내용을 비교하는 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 표에서는 장지연이 새로 추가한 항목 가운데 '서양 사물'의 기원을 다른 사례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서사물기원》과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구조를 비교한 표입니다. 장은 《만국사물기원역사》를 기준으로 표시했는데, []안에는 《태서사물기원》에서 명칭이나 순서가 달리 나타나는 사례를 표기해 두었습니다.

'항목'에서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항목을 세 부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서양 사물의 기원에 대해서 《태서사물기원》의 서술을 수용한 항목입니다. 물론 장지연은 여기에 '동양 사물'에 대한 서술을 추가 하였습니다.

둘째는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새로 추가한 항목인데, 이 가운데 '서양 사물'이 중심인 경우에는 밑줄을 쳐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항목들에서는 《태서사물기원》 이외의 문헌을 참고하여 서양 사물의 기원을 서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장을 바꾼 항목입니다. 예컨대 역법은 《태서사물기원》의 '과학'에 있었지만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천문'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지막 28장 '풍속잡제'는 《태서사물기원》의 '잡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시풍속을 비롯한 풍속에 대한 항목을 수록하고 있으니, 여기서 '잡제'라는 말은 내용을 규정하는 말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장지연은 《태서사물기원》의 서술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는 국한혼용문을 사용하였으므로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물에 대한 서술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는 《태서사물기원》이고, 아래는 《만국사물기원역사》입니다. ‘아모탈랑총’ 혹은 ‘아무탈랑총’이라는 사물에 대해 장지연은 “위림좌의 아무탈랑”이 발명한 것이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윌리엄 조지 암스트롱’을 잘못 옮긴 것입니다.

《태서사물기원》의 번역자는 시부에의 가타카나 표기를 한자 표기로 바꾸는데, 이때 흔히 ‘의’의 뜻으로 쓰이는 갈지[之]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무탈랑총’이란 ‘암스트롱포’인데, 이에 대해 잘 모르던 장지연은 인명에 포함된 갈지자를 ‘의’로 옮기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오류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오류의 존재는 저자의 능동적 역할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에 관련한 외래적 요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니시무라 시게키의 《서국사물기원》에 주목하여 이 문제를 연구했는데, 이후 최정훈 선생이 후속 연구에서 시부에 다모쓰의 《서양사물기원》과 중국 번역본인 《태서사물기원》의 존재를 찾아내는 연구 성과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의 연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배경 가운데 전통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배경 : 전통적 요소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에 관련한 외래적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배경 가운데 전통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태서사물기원》이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성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만국사물기원역사》는 《태서사물기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동양 사물의 기원'에 해당하는 서술을 덧붙였으며, 지식의 구조에 해당하는 장과 항목의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국 사물의 기원'에 대해 장지연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지연이 '동양 사물의 기원'을 세세하게 서술할 수 있었던 지적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을 가능하게 한 전통적 요소를 살피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장지연이 '만국 사물 기원의 역사'라는 주제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으로, 우선 사물의 기원 혹은 만물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전근대 동아시아에 이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원에 대한 의문은 인류의 보편적인 궁금증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저술을 적지 않게 남겼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18세기 학자인 이계 홍양호가 쓴 《만물원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양관편, 부찰편, 근취편, 원취편, 잡물편, 찬덕편, 변명편으로 장을 나누고, 그 아래에 만물을 배치하여 그 기원을 진술합니다. 여기서 '양관'이란 '위로 우러러 본다'는 뜻이니,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또 '부찰'이란 '아래로 굽어 살핀다'는 뜻이니, 아래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사람을 다룬 '근취편'까지 합하면 '천-지-인'의 구성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기원을 찾는 방식은 《만국사물기원역사》와 조금 다릅니다.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인 해명이 서술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물의 기원을 구체적인 사건에 주목하여 서술하는 일은 드뭅니다. 예컨대 눈과 귀가 각기 밤과 낮에 더 밝아지는 이유를 “눈은 해를 본받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밤에는 잘 보지 못한다. 귀는 달을 본받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밤에는 멀리까지 듣게 된다.”와 같이 해명합니다.

또한 “모자에 솟은 부분이 있음은 하늘을 본받은 것이다. 옷에 양 소매가 있음은 사람을 본받은 것이다. 치마가 네 폭인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와 같이 사물의 특정한 외형이 생긴 이유를 ‘천지인’의 개념을 빌어 해명합니다.

구체적인 사물의 구체적인 기원을 다룬 저술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유서(類書) 즉 전근대의 백과사전에서는 해당 항목에서 각각의 기원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전근대 동아시아에는 다양한 유서가 유통되었으니, 사물의 기원에 대한 지식 또한 널리 유통되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1803년 조선에서 간행된 유서인 《아희원람》의 경우에는 ‘창시(創始)’라는 별도의 장을 두었는데, 여기서 창시란 바로 기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송나라 고승이 편찬한 《사물기원》과 같은 유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기원’에 대한 관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물기원》은 처음에는 217항목으로 이루어졌지만, 후대 사람들이 증보하면서 결국 총 1,764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55부의 명칭이 다소 특이해 보이지만, 여기에 수록된 항목은 일반적인 ‘사-물’입니다.

“바둑이나 장기, 곤충이나 짐승에 이르기까지 유래를 살피지 않은 것이 없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사물기원》은 방대한 규모의 ‘사물 기원의 역사’를 수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물기원》에 수록된 ‘기원’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유서는 전대 문헌으로부터 자료를 뽑아 정리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사물기원》의 ‘기원’은 전대 문헌에 ‘기원’으로 기록된 것을 뜻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장지연이 《사물기원》을 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물기원》의 내용은 전대의 문헌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그 일부가 이후의 다른 유서에 인용되기도 합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사물기원》을 읽지 않고도 여기에 수록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장지연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장지연은 《만국사물기원역사》를 편찬할 때 ‘유서’의 전통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활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서는 전대 문헌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광고에서 언급된 분류와 수집은 사실 유서의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유서가 주제별 분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국사물기원역사》가 일반적인 유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니시무라나 시부에, 그리고 《태서사물기원》의 편찬자들도 자연스럽게 유서의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 구성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근대 한국에서는 중국의 유서를 수용하는 한편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유서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대동운부군옥》에서부터 《임하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서가 편찬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지봉유설》의 경우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여러 차례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전대의 유서는 《만국사물기원역사》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장지연은 직접 유서 편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장지연의 저술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미 언급했지만, 장지연은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증보문헌비고》의 편찬도 참여했습니다. 1906년에 완성되고 1908년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는 일종의 관찬 유서라고 할 수 있는데, 16고 250권의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지연은 ‘찬집’으로 편찬에 참여하였는데, 여기 제시하는 명단 가운데 ‘전 내부주사 장지연’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장지연이 어떤 주제를 집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대한 규모의 유서를 편찬한 경험은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다양한 동양의 사물에 대해 서술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보문헌비고》편찬 과정에서 얻은 지식이나 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지연은 《증보문헌비고》를 《만국사물기원역사》의 편찬에 직접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증보문헌비고》를 직접 인용서로 거론한 일은 없지만, 《증보문헌비고》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오류를 범한 경우가 있고, 《증보문헌비고》의 오류를 그대로 이어받아 서술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은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2]는 《증보문헌비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에서는 번역문을 앞에 제시하고 원문인 한문을 뒤에 붙였습니다. [1]에서는 종종 20년에 사성 이순이 ‘일륜순’이라는 관천기 즉 천문관측기구를 처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2]에서는 “중종 20년에 사성 이순이 중국에서 『혁상신서』를 구해 왔는데, 그 가운데 ‘목륜’이라는 천문관측기구가 있었다. 이순이 책을 참고하여 만들어 올렸는데, 제도가 매우 정교하였다. 관상감에 두도록 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장지연은 '관천기'라는 항목에서 이 구절을 썼는데, 《증보문헌비고》의 서술 가운데 필수적인 정보만 추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명알목륜(名日目輪), 순안서제진(純按書製進)"이라는 구절에서 '목(目)'을 비슷한 글자인 '일(日)'로 착각하고, 사람 이름인 '순(純)'을 기구 명칭의 일부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증보문헌비고》의 문장을 자료로 활용했을 때 충분히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상으로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배경 가운데 전통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근대 동아시아에는 《만물원시》나 《사물기원》과 같은 유서를 중심으로 '사물의 기원'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 지식인인 장지연은 전통적인 저술의 한 형태인 유서에 익숙했으며, 직접 관찬 유서의 편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핀 외래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를 바탕으로 삼아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과정을 재구(再構) 해 보고, 그 학술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과정과 학술사적 의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배경 가운데 전통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과정과 학술사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자 장지연의 저술 활동, 저술의 외래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를 점검함으로써 《만국사물기원역사》가 편찬되기까지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과정을 재구(再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장지연이 《태서사물기원》이외의 문헌을 참고하면서 서양 사물의 기원을 서술한 흔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저술 과정을 재구(再構)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만국사물기원역사》의 학술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과정을 재구성해보기 위해, 먼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간접적인 참고 문헌으로 확인되는 것 가운데에는, 먼저 상하이에서 일본 작가 시부에 다모쓰의 저술을 번역한 《태서사물기원》을 들 수 있습니다. 장지연은 이 책에서 제시한 지식의 구조를 참고하여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체계를 만들고, 이 책을 통해 서양 사물의 기원에 대한 지식을 상당 부분 얻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양 사물의 기원에 대한 서술에서는, 참고한 문헌을 직접 거론한 사례로 이수광의 《지봉유설》과 유득공의 《경도잡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봉유설》에 대해서는 앞서 유서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경도잡지》는 28장 '풍속잡제'를 서술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장지연이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간행 이후에도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장지연은 1909년 2월에 <경도잡지서> 즉 《경도잡지》의 서문을 썼는데, 여기서 《경도잡지》를 바탕으로 삼아 장차 일종의 '풍속사'를 쓰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한국과 중국의 사서와 유서를 참고한 흔적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만, 구체적인 책을 직접 참고하고 인용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는 직접적인 인용과 다른 문헌으로부터의 재인용을 구별하지 않고 서술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류 등으로부터 유래를 추정할 수 있는 몇 부분을 제외한다면, 특정한 서술이 원래의 문헌에서 온 것인지 《증보문헌비고》와 같은 문헌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참고 문헌을 확인하거나 짐작하기 어려운 지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태서사물기원》에 실려 있지 않은 '서양 사물의 기원'들은 그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22장 기계의 마지막 항목인 '기기' 같은 경우에는 고유명사 표기를 검토하면 《태서사물기원》이 아닌 또 다른 문헌에서 옮겨 온 것일 가능성이 높는데, 아직 어떤 문헌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지연의 저술 전반을 살펴보면, 이런 지식들을 인용한 것이 차기 혹은 필기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차기' 혹은 '필기'란 일종의 독서기 혹은 독서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책이나 글을 읽고서 필요한 구절을 옮겨 쓰거나 자신의 감상을 덧붙이는 방식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지연은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옮겨 놓은 '초록'을 지속적으로 작성했고, 때로는 일종의 '스크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장지연의 저술을 모은 《장지연전서》의 7권과 8권에는 장지연이 작성한 차기나 필기 또는 신문 초록으로 짐작되는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지식의 유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장지연전서》의 7권과 8권에 수록된 자료들, 즉 장지연이 작성한 차기 혹은 필기에 일정한 형식은 없습니다만,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을 통해 그 활용 가능성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항목에 따라 간추린 정보를 쓴 것이라면, 오른쪽은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고 아래에 날짜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형식의 자료에는 날짜 이외에 신문 또는 잡지의 명칭을 기록한 사례도 보입니다. 언급된 신문 가운데 중국에서 발간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장지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던 시기, 그리고 상하이로 경유하던 시기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지연은 해조신문사에서 기사를 쓰기만 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일기를 살펴보면, 그곳에서 다양한 책을 구해 읽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문초록’이라는 제목을 붙인 자료의 일부입니다. 1908년 즉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하이를 거치는 동안에 작성한 것입니다. ‘군용공중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공중선이란 하늘에서 움직이는 배, 즉 기구에서부터 비행기에 이르기까지의 교통수단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오른쪽 원문 아래에 제시한 번역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래의 군용물 가운데 계류경기구, 유동경기구, 공중비행선의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의 종류는 거의 종착점에 이르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것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60만 원의 경비를 들여 5,000명을 태워 보낼 수 있는 자본을 삼았다. 비행선 1척마다 조종자 1인, 공부 100인, 사관 200인 및 쓰는 데 필요한 무기를 탑재한다. 가장 어려운 일은 조종의 숙련이다.

계류경기구는 충분히 발달되었지만, 유동경기구 즉 움직이는 기구와 공중비행선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영국에서 그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종류의 비행선을 제작하고 관련 인원을 훈련시키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처럼 소문에 가까운 소식이 신문에 실리는 것은 당시에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공중비행선’이라는 항목에는 《관문초록》에 옮겨진 기사와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중비행선은 근래에 영국인이 발명하였다. 비행선 1척마다 조종자 1명, 공부(工夫) 100명, 사관(士官) 200명 및 다수의 폭탄과 무기를 싣는데, 전시에는 적진에다 떨어뜨린다. 지금 영국이 60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 시험 삼아 만들고 있는데, 그 구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는 못하여서 현재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인을 ‘발명자’로 단정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60만 원의 경비’와 같은 서술에 주목하면 《관문초록》의 기록이 이 부분의 서술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발명의 시점을 ‘근래’로 기록한 것은 특이한데, 다른 데서는 몇 년 혹은 몇 년 전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했던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관문초록》의 기록에서 ‘근래’이상의 정보를 발견할 수 없기에 이처럼 서술할 수밖에 없었을 듯합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과정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요소는 검열입니다. 검열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거나 사회풍속과 관련된 문제적인 구절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만,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는 삭제보다는 추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검열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은 《장지연전서》에 실려 있는 원고본의 표지입니다. 검열을 마치고 출판을 허가한다는 도장이 보입니다. 단순한 필사본이 아니라 검열을 위해 제출한 초고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검열 과정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수정 요구의 사례입니다. 별지를 붙여 수정을 요구했는데, 검열관은 소전성오 즉 오다 쇼고입니다. 뒤에 경성제대 교수로 활동하는 사학자입니다.

오다 쇼고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봅시다.

‘거울’이라는 항목인데, 경대의 기원을 여기에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먼저 서두에는 《잠학유서》와 《천중기》에 기록된 거울의 기원을 제시했습니다. 장지연이 《잠학유서》와 《천중기》를 직접 인용했을 수도 있고, 다른 책에 기록된 이들 문헌의 기록을 재인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사례로 ‘기자경’을 거론했습니다.

그 아래에 오다 쇼고의 요구를 반영한 대목이 보입니다. 일본의 삼종신기를 언급했는데, 이 셋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울입니다. 다른 항목에서도 신화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니, 이것은 그리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충의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울과는 거리가 있는 ‘초지검’이라는 칼에 대해 길게 서술한 것은 다소 어색합니다. 검열관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책의 완성도에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식의 훼손이 이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일본 사례의 아래에는 서양의 거울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의의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강의 서두에서 몇 가지 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그 가운데 다소 지나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만, 이제 저술 배경과 과정을 살펴본 바를 토대로 다시 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는 역사적 맥락 그 가운데에서도 학술사적 관점에서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래 지식이 유입되는 시기를 맞이한 전통적 지식인의 성취'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의 문헌을 그대로 번역하거나 외국의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정리한 저술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이 책과 같은 지적인 분투와 성취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둘째, '세계 또는 동아시아 차원의 지식 유통의 사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책의 유형과 언어를 달리하면서 네덜란드로부터 일본,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르기까지 지식이 유통되는 양상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전통적인 유서의 전환기적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어학사전, 백과사전을 비롯한 각종 근대적 사전이 등장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유서'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초기 국학에서의 비교사적 시각의 가능성을 제시한 문헌'이라는 점입니다. 비교사적 시각은 학문의 객관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국사물기원역사》가 당시 학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가능성 차원에서는 비교사적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국사물기원역사》는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닌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 자체가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국'이라고 했지만 동아시아와 유럽, 미국 정도만을 다루었을 뿐이며, 그나마도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서술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장지연 또한 여기에 만족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보>에는 1916년에 일종의 개정 작업을 고려했던 흔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실천하지는 못한 듯하며, 대신 《조선유교연원》이나 《대동시선》과 같은 한국에 국한된 저술을 마련합니다. 1916년의 시점에서는 일본 유학생 세대가 활동하게 되었으니, 전통적 학문 배경을 지닌 장지연이 '만국'의 문제에서 이들을 넘어서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국사물기원역사》에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서술이 존재한다는 점은 완성도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한계는 당대, 즉 20세기 초의 '상식'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러한 오류 자체가 시대를 읽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의 상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는, 우선 일본의 문자 가타카나의 발명자에 대한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인 검열관이 지적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 일본에서도 이러한 지식이 유통되었던 듯합니다. 실제 당시 중국의 교과서류 문헌에서도 이런 지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에서 유래했다고 서술했는데, 여기에는 이 숫자를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이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이 중개자 구실을 한 것이라는 사실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20세기 초의 한국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만국사물기원역사》가 어떤 책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학술사적 의의와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그것만으로는 책에 대한 능동적인 이해와 감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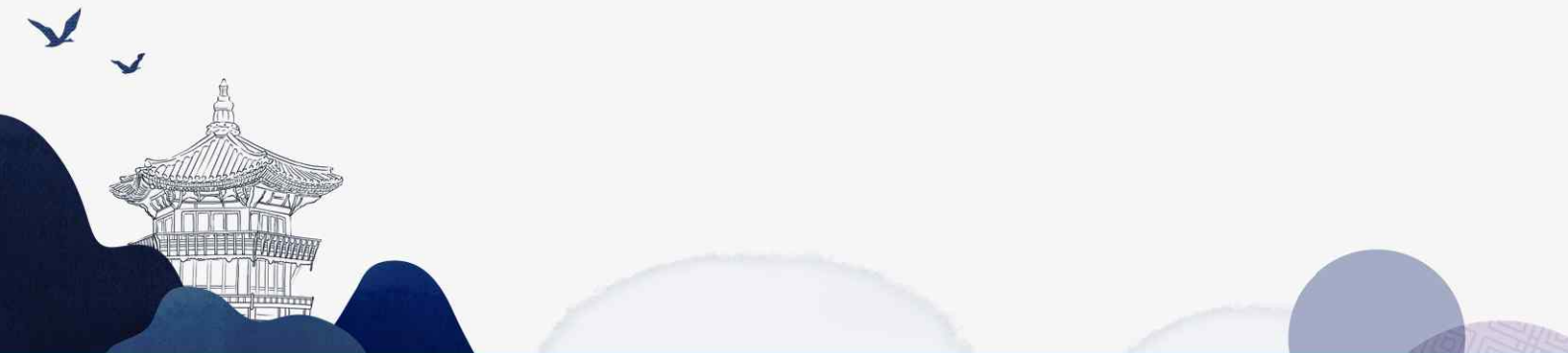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다음 강의에서는 책의 몇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서 다른 주제를 포함하여 《만국사물기원역사》의 능동적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9

Understanding Man'guk Samul Giwon Yeoksa

9-1

What Kind of Book is Man'guk Samul Giwon Yeoksa?

Hello, students. I'm Hwang Jae-moon, one of the lecturers in this course,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on Man'guk Samul Giwon Yeoksa. . This is the ninth lecture, and I would like to proceed with the theme of 'Understanding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 History and Origins of All Things of the World).'

Before we begin, let's guess about the content from the title of the book, publis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title is made up of several terms: 'Man'guk (World),' 'Samul Giwon (Origin of Things),' and 'Yeoksa (History).' It starts with the word 'Man'guk,' showing that it covers the whole world, not just one country.

The word 'Samul Giwon' needs to be explained a little bit. Samul is a combination of matter (sa) and things (mul), and in the end, it means everything that exists around us. It means that the book is going to deal with the origins of everything around us. And since it says 'Yeoksa,' they are describ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ime.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t what the book is like.

First, let's look at the cover and the copyright paper. On the cover, along with the title of the book, you can see the author's name 'Sungyangsanin Jang Jiyeon' and the publisher's name 'the Hwangseong Sinmun (the Capital Gazette).' On the copyright paper, along with the list price of the book, the printing date is marked as 'May 20, the 3rd year of Yunghui (Abundant Prosperity),' and the publication date as 'August 15, the 3rd year of Yunghui.'

The 3rd year of Yunghui is 1909. From a cultural perspective, this was the time when premodernity and modernity were mixed, with the full influx of new cultures, such as foreign knowledge and civilization, while traditional culture still persisted.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this book was published at this time. It's also worth noting that there was a three-month gap between the time of printing and the time of publication, because this book might have been censored and partially modified during this period.

Who is Jang Jiyeon, the author whose name is on the cover and the copyright paper? On the left is the title page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which contains the same phrase as the cover, and on the right is the image of Jang Jiyeon. Jang Jiyeon was born in Sangju, Gyeongsang-do in 1864, and studied traditional textbooks and Literary Chinese.

After King Gojong's internal exile to the Russian legation, he gained a reputation with "Maninsong (Memorial of Ten Thousand People)," asking for King Gojong's return. After that, he worked in the Institute for History and Rituals, participating in the compilation of *Daehan Yejeon* (Etiquette and Protocol of Korea), which established formality of the state as an empire, and became president of the Hwangseong Sinmun Company in 1902. In other words, he was recognized for his traditional studies and writings and practiced modern journalism. Why did he publish the book *Man'guk Samul Giwon Yeoksa*? When you publish a book, you usually write an article that shows the purpose or circumstances of the publication and attach it to the front or back of the book. The text attached to the front is called the preface, and the text attached to the back is called the postscript, and it is common to attach either of them.

However, there is no preface to *Man'guk Samul Giwon Yeoksa*. But we can guess the purpose of its publication, because we still have advertisements for the book in the newspaper. Perhaps because it was published by the Hwangseong Sinmun, advertisements for this book continued to appear in this newspaper in 1909 and 1910. There are two types of advertisements presented here, and though the format is slightly different, the copy is the same.



Let's take a close look at the advertisement. The above is the original text, and below it is a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core information of the advertisement. "The history of the names, periods, and lives of the people who first made ancient and modern objects in all countries of the East and the West." This is the content of the book. That's the material for "great learning and vast knowledge," so if you open the book, you can get knowledge of everything in all ages.

So who is the reader? The advertisement lists gentlemen, educators, speakers, newspaper reporters, and students as expected readers of the book, which can be summed up as intellectuals. What deserves our attention in this ad is that they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Collecting and presenting data according to certain classification criteria is a basic attribute of modern encyclopedias or pre-modern East Asian yuseo (classified reference book). Here, you can guess the form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context of this book.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but it has received scholarly attention early on. I think I can summarize the academic evaluation of the book in several points.

First, it was the first publication of a modern encyclopedia, and a work that deals with the knowledge of the 'West' and that of 'us' together. There was, of course, some publications of pre-modern classified reference books like Jibongyuseol (Topical Discourses of Jibong), but none of them were as close to modern encyclopedias as this book. In addition, you can find some work that deals with the knowledge of the 'West' and that of 'us' separately at the time,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where they are covered together in comparison.

Second, as a history book, it has been evaluated as the first independent writing of world history. At the time, the books on world history was published through retranslating Japanese or Chinese translations of Western history books, but this book opened up the stage of writing it independently. We need to think more about how to define the term 'independent' here, which we will review later while examining the writing process of this book.



Third, if you pay attention to the contents, it can be evaluated as the 'unique literature' containing 'special knowledge' that was difficult to find in other contemporary works. In fact,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sometimes mentioned in various major fields. For example, the trichotomy of literature into 'lyric, epic and drama,' and the field of study called 'sociology' were first introduced in this book.

It seems somewhat unnatural that the author was not an international student or a person fluent in Western languages but a traditional intellectual, but it is clear that there is a lot of knowledge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book. It introduces many Western science and culture, including weather forecasts, Roman novels, and diving equipment such as diving bells. It also presents a unique view on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difficult to find in other literature, and one of the examples is the origin of hot pot.

Let's take a look at the part that introduces sociology. You can see the original text on the right, which is written vertically. If you change the sentence into modern Korean, and change the person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to a common notation today, it can be translated as above.

In addition, a brief explanation added below will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It may seem obvious from today's point of view, but considering that it was written by an intellectual with a traditional academic background in 1909, you have to admit that it's extraordinary.

Now let's take a quick look at the composition of the whole book. It consists of 28 chapters and 498 entries, similar to the general composition of 'yuseo.' It seems to be following the system of 'yupyeonyuseo (categorized yuseo),' which divides the topics into broad categories, sets subcategories within them and describe them one by one.

The composition of chapters and entrie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in the next class. Here, please explore this table summarizing the chapters and items according to the original text and imagine the contents of the book.



A modern interpretation is attached in brackets to the words whose meaning is difficult to guess. First, chapters 1 to 6. Please pause the video for a moment and take a 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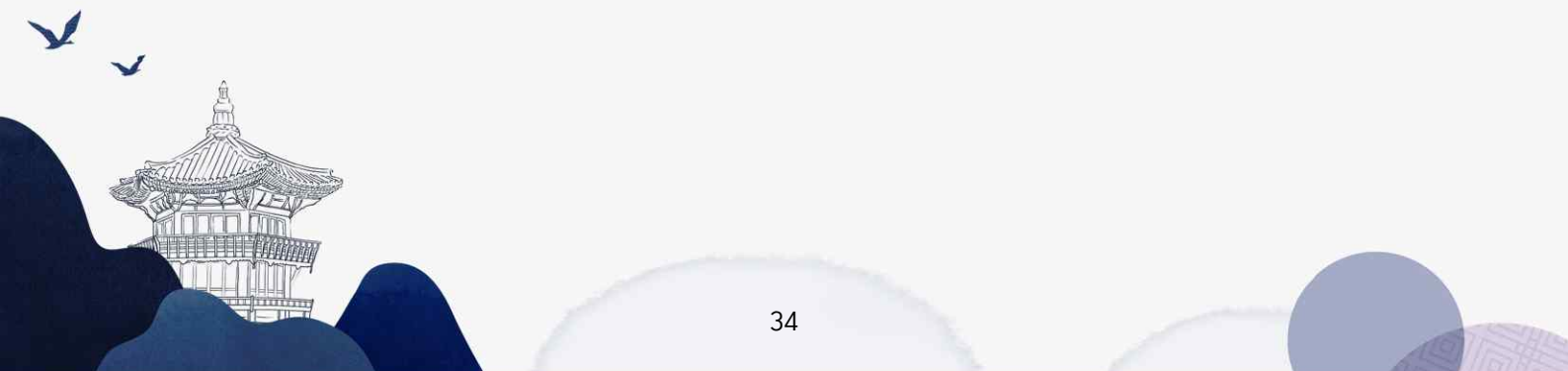
Next, let us explore the composition of chapters 7 to 12. 'Uijang (Ceremonial Apparatus)' in Chapter 9 refers to the tools used for rituals, and oddly, this chapter deals only with the things of the East.

Next, the composition of chapters from 13 to 18. 'Boksik (Costume)' means clothing.

Next, the composition of chapters from 13 to 18. If you look at the items in Chapter 21 Music and Chapter 22 Machines, you can see that things from the East and the West are presented together. 'Giyong (Instruments)' in Chapter 23 means various living tools. 'Weights and Measures' is the first entry, where the history and units of Eastern and Western measuring tools such as rulers and scales are described. Finally, the composition of the chapters from 24 to 28. 'Pungsokjapje (Customs and Miscellaneous Subjects)' means customs.

So far, we've briefly reviewed what kind of book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for what reason it has received attention, and how it is organized. Please keep in mind, as you can guess from the table summarizing the chapters and items, it is similar to the pre-modern 'yuseo,' the classified reference book.

In the next session, we will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Jang Jiyeon's writing career and Man'guk Samul Giwon Yeoksa.



**9-2****Jang Jiyeon's writing career and Man'guk Samul Giwon Yeoksa**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briefly reviewed what kind of book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for what reason it has received attention, and how it is organized.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Jang Jiyeon's writing activity and Man'guk Samul Giwon Yeoksa.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background of compiling Man'guk Samul Giwon Yeoksa by looking at the author's writing career in detail.

Earlier, I briefly summarized that Jang Jiyeon was 'a person who was recognized for his traditional studies and writings and participated in modern journalism,' but he actually published various kinds of articles and books. He was also a very prolific writer, and is said to have written so much that even 9,700 pages of Collected Works of him could not cover all his writings, including those with only titles left.

Now, let's check out Jang Jiyeon's writing career, and review the posi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think about his motive for writing this book.

Jang Jiyeon is a person who gained reputation as a writer. As is often the case with figures who were active during a time when tradition and modernity are mixed, Jang Jiyeon had many professions, such as a poet, scholar, writer, bureaucrat, educator, and journalist, all of which are related to 'writing.'

Also, considering that it is essential to have a space to present writings in order to engage in such activities on the brink of the modern era, Jang Jiyeon's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 with the press might have been the background of his prolificacy.

As mentioned earlier, Jang Jiyeon took office as president of The Hwangseong Sinmun Company in 1902. Prior to this, he also worked as the chief editor. The reason Jang Jiyeon left the newspaper company was an editorial he wrote in 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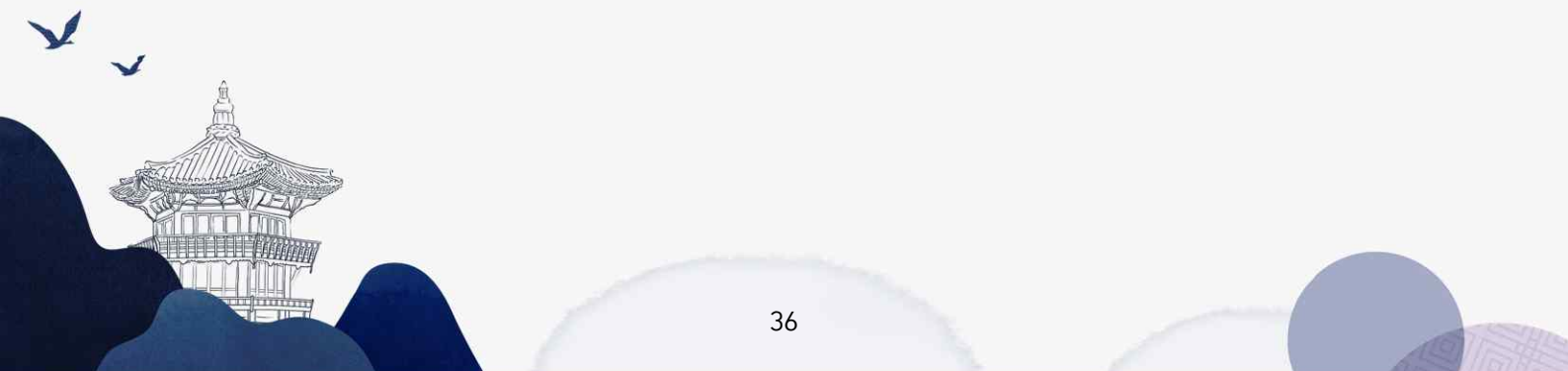
Siilya Bangseongdaegok, which is interpreted as 'Today We Cry Out in Lamentation,' published in the newspaper on November 20, is a fine writing that points out the injustice of the Japan-Korea Treaty of 1905 signed on November 17.

Due to this editorial, the Hwangseong Sinmun was suspended, and Jang Jiyeon left the company. Since then, he has worked for academic societies and overseas and local newspapers, but his writing career couldn't be as 'stable' as before.

Jang Jiyeon, who wrote Siilya Bangseongdaegok, did not end his writing care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He still wrote a lot, and published books that are still worth referring to today. It would not be completely wrong to say that writing regularly for the Maeil Shinbo (Daily News), dire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the opportunity for him to keep on writing.

Jang Jiyeon decided to write for the Maeil Shinbo not as a regular reporter but as 'gaekgyeong (foreign excellency),' which was such a shock at the time that it was reported in the newspaper in December, 1914. From the political point of view, there are quite a few issues to consider critically, but in terms of his writing career, it can be said to have been the foundation for his continuous writing.

Now, let's look at his career, focusing on his writing. First, this is what he did before 1910.





After gaining reputation for “Maninso,” Jang Jiyeon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of Daehan Yejeon (Etiquette and Protocol of Korea) as a staff member of the Institute for History and Rituals. The Korean Empire had to set the proper protocol as an empire, and he was able to participate in this project. He later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of Jeungbo Munheon Bigo (Supplementary Reference of Documents), as well. Jeungbo Munheon Bigo is a document that summarizes the state's system and culture, which is an expanded and supplemented edition of Dongguk Munheon Bigo (Reference of Documents of the East Kingdom), which was compiled during the King Yeongjo's reign. The compilation began in 1903 with the establishment of Chanjipcheong (Hall of Collation), and the book was published in 1908.

As I mentioned earlier, he wrote for newspapers including the Hwangseong Sinmun, but after leaving the company, he participated in academic societies such as Daehan Jaganghoe (Korean Self-Empowerment Association) and wrote a lot in academic journals. In addition, a number of books were published around 1907, many of which were textbooks compiled while he was involved in Whimoon School. Although not compiled by Whimoon School, Yeojadokbon (Woman's Reading), the textbook for women, or Aeguk Buinjeon (The Story of a Patriotic Lady) an adapted story of Joan of Arc in Korean with a clear mark of 'new novel,' are still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 today.

In 1914, Jang Jiyeon resumed his active writing career, serving as 'gaekgyeong' for the Maeil Shinbo. He had also written for the Gyeongnam News before this, but I guess it was a relatively unstable position at the time. The controversy with Takahashi Toru in 1915 is known to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rection of his subsequent writing career.

In addition, he compiled Joseon Yugyo Yeonwon (Origin of Confucianism in Joseon), Ilsayusa (Biographies of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Daedong Siseon (Poetry Anthology of the Great East), books that can be a good guide even today during this period, and these writings are thought to have been directly serialized in the Maeil Shinbo or written with the help of it in data collecting or promotion. It's worth remembering that these writings focus on the 'things' of 'us,' unlike Man'guk Samul Giwon Yeoksa.



We have divided Jang Jiyeon's writing career into two periods. It seems that almost all of his works that describe Korean history, culture, and geography or collect related materials and attracted attention of Korean Studies researchers are mentioned. But the subject of today's lecture, Man'guk Samul Giwon Yeoksa, has not yet appeared, and nor have the books written in the same period. Man'guk Samul Giwon Yeoksa was published around 1909, after Jang Jiyeon left the Hwangseong Sinmun and before he established a relationship with the Maeil Shinbo.

Meanwhile, Jang Jiyeon had an important experience in the years before the publica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He experienced foreign countries. From July to September 1905, he joined the group observation of Japan led by Min Yeonggi to visit the Ministry of the Imperial Household, newspaper companies, Japan Mint, banks, paper mills, and printing offices, and interviewed Korean people staying in Japan, in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ose involved in Donghak (Eastern Learning). In particular, on July 30, he saw the Gwanggaeto Stele at the museum, which he introduced in domestic newspapers.

In 1908, he was invited to the editor in chief of the Haejo Sinmun, a Korean newspaper in Vladivostok. After leaving the Hwangseong Sinmun in November 1905 due to Siilya Bangseongdaegok, Jang Jiyeon got involved in academic societies, but it became difficult to be actively engaged in journalism as before.

Jang Jiyeon, invited by the Haejo Sinmun, departed in January 1908 and arrived at Vladivostok a little behind schedule. On March 2, he published his first editorial Sinmun Euidokron, meaning that you should read a newspaper, and he expressed his feeling in his diary that it was difficult to write properly because it should be written only in Hangeul.



For the next few months, Jang Jiyeon continued to read and write for the Haejo Sinmun despite conflicts with the local public figures, but eventually left Vladivostok as the newspaper ceased publication. Jang Jiyeon did not return home immediately, but stopped in Shanghai on the way, where he visited bookstores such as Guangzhi Book Company, the Commercial Press, and Wenming Bookstore, which were the representative local publishers, and bought books there. He had the experience of reading and obtaining books published and distributed in Shanghai, one of the hubs of East Asian knowledge distribution at that time.

He returned home via Shanghai in September, 1908. On arriving, he was briefly investigated and released, but his career became more restricted than before. Of course, self-censorship also must have affected the situation.

The following year, 1909, Jang Jiyeon wrote a significant amount. According to the Yearbook compiled by Jang Jiyeon himself, in 1909, he wrote 10 articles, including "the Purpose of Gyonam Academy," and compiled five books, including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 articles and books mentioned here are also quite a lot in volume, so you can guess that Jang Jiyeon devoted himself to intensive writing during this period.

It seems that the books recorded in Yearbook is not all that he wrote. In the newspapers of that time, advertisements for four books written by Jang Jiyeon are found, and one of them, Hoejungsingyeong (a New Mirror in My Mind) is not included in the Yearbook. Hoejungsingyeong is a diary-type notebook, with various information such as a solar terms table,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transportation fares attached on the front and back. There are small letters next to the text printed by date, and this is the summary of events on that date. That is, it's kind of 'Today in History.'

Organizing content like this must have required considerable effort, and Jang Jiyeon published it in the Hwangseong Sinmun in 1908 and 1909.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Hoejungsingyeong was covered in my paper titled "A Study on Writing Activity of Jang Jiyeon in 1908 - 1909," published in 2014.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this paper.



To summarize what has been discussed so far, Jang Jiyeon concentrated on writing after returning home.

On the left is the 1909 part of the Yearbook written by Jang Jiyeon himself. As I said earlier, Jang Jiyeon wrote about 10 articles and at least five books in 1909, and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time and effort was spent on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 Yearbook says that the compilation began in March and was completed in May, but the preparation process, such as organizing data, must have taken longer than that.

Jang Jiyeon returned to Korea in September 1908 and wrote several works for a year or so until he was invited to be the editor in chief by the Gyeongnam Ilbo in October 1909, some of which were published and others remained in manuscripts. There are also books that are not currently existent. The published works, Man'guk Samul Giwon Yeoksa, Jeopmok Sinbeop (New Ways of Grafting), Sochae Jaebae Jeonseo (Comprehensive Guide to Cultivating Vegetables), and the manuscript Hwawonji (the Garden Book), are included in the Collected Works of Jang Jiyeon, and looking at the real books, all of them are quite voluminous, and the author is believed to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compilation process.

In addition, many of the contents are believed to have been written based on the knowledge and literature obtained through overseas experiences, previous journalism experiences, an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book compilation. Compared to previous books, you can also point out that these books deal with the themes with less political character.

So far, we have roughly summarized Jang Jiyeon's writing career, and briefly looked at his overseas experience and his writings after returning home in relation to the compila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 think you could guess to some extent by now, that Man'guk Samul Giwon Yeoksa occupies a unique position among Jang Jiyeon's writings.

In the next class, we'll focus on Man'guk Samul Giwon Yeoksa itself and look at what foreign elements affected the writing of this book.



9-3

Writing Background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 Foreign Elements



Hello, students. Last time, we summarized Jang Jiyeon's overall writing career and briefly looked at his overseas experiences and writing activities after returning home in relation to the compila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This time, we're going to focus on the book itself and look at what foreign elements affected the writing of this book

Earlier, we looked at what kind of book it is, how it is currently evaluated, and what position it takes in the author's writing career. Now, based on our discussion, let's look at the contents of the book in detail and think about its writing background together.

Before discussing specific foreign factors, let's first think about the author's role. Considering the contents of the book, especially the unusual knowledge, you might well expect the existence of foreign literature which directly influenced the book. but even if such literature exists, the significance of the book can be properly determined only after examining whether the author's role is a simple translator or an active compiler. That's why I'm asking you first to think about 'the role of author.'

If you actively accept the aforementioned evaluation of 'the first independent world history writing,' you may understand it as Jang Jiyeon accumulating knowledge through learning and presenting it through writing the book independently. However, this is likely not the case. That is because Jang Jiyeon had no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and was a traditional intellectual who lacked the ability to understand foreign languages.

Although he is considered to be 'erudite,' the area of his erudition was not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East Asia. In other words, with his erudition alone, it is difficult to explain how he came to acquire the new knowledge covered in this book.

Perhaps because of this, it was suspected, early on, that the book was a retranslation. It is also true that retranslating the Chinese or Japanese translation of Western literature could be commonly found in Korea at that ti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Man'guk Samul Giwon Yeoksa was written through translation, including retranslation. There are two reasons: First, many of the 498 entries describe Western cases together with cases in the East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I'm not exactly sure, but it seems that there was no literature like this in China or Japan or even in the West at the time.

Second, if you look into the entire book, you can find different notations of the same object using Literary Chinese, especially the names of people or places. Sometimes there are overlapping descriptions of the same event in different entries, where the transliteration of the same proper noun changes.

So, even if there was reference that was close to the original, we could presume that there were several, not just one. In short,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even if it was a translation of a specific literature, it must have been a fairly 'limited' translation.

Let's take a quick look at the examples of multiple transliteration of proper nouns for the same object. I summarized this in 2012 while writing a thesis. I've found more cases since then, but most of the important ones are here.

In the case of William Caxton and Thomas Edison, it's har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otations are the names of different people, but it's clear that the rest of the cases, the notations for Magellan, Galilei, Herodotus, Abraham, Jacob, Assyria, Arabia, Aristotle, refer to the same object. If he had translated one reference book, these cases would not have appeared.

The book I paid attention to in my 2012 thesis mentioned a while ago was Saigoku Jibutsu Kigen (the Origins of Things of Western Country) written by Nishimura Shigeki in 1879. Nishimura Shigeki is a Japanese scholar of Rangaku (Western studies) who worked as a member of an academic society called Meirokusha. He was a senior member of Meirokusha, and later, he was known for insisting on fusing the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ies and emphasizing ethics education.



In Saigoku Jibutsu Kigen, you can find a number of 'origins of things' mentioned in Man'guk Samul Giwon Yeoka. You can also find similar expressions, not to mention the contents. But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as well.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scale, Saigoku Jibutsu Kigen consists of 38 chapters and 412 items in 490 pages. Its amount of description per item is larger than that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sometimes it goes beyond the origin of things and deals with the current use.

It describes the 'origin,' when humans first used a specific mineral or plant, and adds an explanation that it is now common in a specific area and has a specific use. Of course, like the title shows, it only deals with the West, so there is bound to be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Man'guk Samul Giwon Yeoksa, which covers the East as well.

In the preface of the book, Nishimura tells us how he gained the knowledge of the West. "There are as many as 10 pieces of Western literature cited, but I don't bother to mention their names one by one. Among them, the most cited is Baekmulwonsi (Origins of Hundred Things) by Oosterzee, a Dutchman." 'Oosterzee' is the pronunciation of Nishimura added next to the name in Literary Chinese. It is natural for Nishimura, a Rangaku scholar, to acquire knowledge from Dutch literature.

What kind of book is Oosterzee's Origins of Hundred Things? Recently, Choe Jeonghun discovered that the book was a small encyclopedia written in 1850 by a Dutch man named Hendrik Marinus Christiaan van Oosterzee.

You can guess from the title that it is about the origins of objects used in everyday life, and if you look at the real book, the items are arranged in alphabetical order like today's dictionaries. The arrangement and description of items are quite different from Nishimura's Saigoku Jibutsu Kigen. Nishimura must have 'referred to' the content of this book rather than translating it. You can find a copy of Saigoku Jibutsu Kigen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Seoul. It already came in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onial period. So, did Jang Jiyeon read or utilize this book?



Let's take a look at the book for a while. The cover contains the author, title, and year of publication. The 'List' is made in almost the same way as Man'guk Samul Giwon Yeoksa, but the details are not completely the same. The two books have different chapters, and Man'guk Samul Giwon Yeoksa has more items. In addition, they have different names for the same event or object. Descriptions of each entry is quite long. The first entry of Chapter 1, The Sky, is The Planet, while the first entry of the Chapter 1, Astronomy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Taegeuk (the great polarity).

In conclusion, it is unlikely that Jang Jiyeon wrote Man'guk Samul Giwon Yeoksa by directly referring to this book. The reason for this is the difference in phonetic notations using Chinese characters.

In many cases, similar entries describe almost the same events or objects, but Jang Jiyeon uses different Chinese characters from Saigoku Jibutsu Kigen in transliterating the proper nouns. There is no reason Jang Jiyeon should do so. At least Saigoku Jibutsu Kigen can't be a direct reference, but it's hard to say that the similarity of the contents is completely accidental.

If Jang Jiyeon's reference book was not Saigoku Jibutsu Kigen,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if there was another book written with reference to this book.

Shibue Tamotsu is presumed to have referred to the contents of Saigoku Jibutsu Kigen a lot while writing Seiyō Jibutsu Kigen (the Origin of Western Things) in 1894, and if you look at the details, you will find that it is more similar to Man'guk Samul Giwon Yeoksa.

Shibue Tamotsu was a Japanese translator and author, and many of his books were translated in Korean at the time. In particular, many writings on Western history were introduced. Seiyō Jibutsu Kigen was published as the 46th book in '100 Short but Valuable Books' series by Hakubunkan, and the name of the series was written along with the title on the title page of the book.



Then, did Jang Jiyeon refer to Shibue's book? It is hard to say that. Shibue wrote proper nouns mainly in Katakana, and only some of them ar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Jang Jiyeon may have changed Katakana to Chinese characters, but it's unlikely.

Shibue's *Seiyō Jibutsu Kigen* was translated in China shortly after, in 1902 Guangxi Book Company published it under the title of *Taixi Shiwu Qiyuan* (Origins of Things in the Great West) and after a while, other publishers translated and published it. Guangxi Book Company was one of the places Jang Jiyeon stopped by in Shanghai, as we saw earlier. Of course, Jang Jiyeon did not mention the book in his diary, but it is possible that he was interested in the publications when he stopped by Guangxi Book Company in 1909. Let's take a look at the table of contents and the text of *Taixi Shiwu Qiyuan*. It is easy to guess that it is more similar to *Man'guk Samul Giwon Yeoksa* than Nishimura's book. Not only the contents but also the phonetic notations of Chinese characters are similar. Of course, *Taixi Shiwu Qiyuan* or the original *Seiyō Jibutsu Kigen* by Shibue cannot completely match up with *Man'guk Samul Giwon Yeoksa*. Because they basically cover only Western objects.

Assuming that the compila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was based on *Taixi Shiwu Qiyuan*, Jang Jiyeon changed 23 chapters to 28 chapters and added at least 277 more items. Some chapters were split or relocated, and some items were deleted while others added. Sometimes he moved certain items to another chapter. Perhaps it was because he didn't agree with the 'classification' of *Taixi Shiwu Qiyuan*, a translation of *Seiyō Jibutsu Kigen* by Shibue.

It seems likely that Jang Jiyeon's additions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are mainly descriptions of 'things of the East,' but actually, not all of them are. In my 2018 article, 'Reexamining the Process of Making *Man'guk Samul Giwon Yeoksa*,' I presented a table comparing the contents of the two books, and this table shows that many of Jang Jiyeon's newly added items deal with the origin of 'things of the W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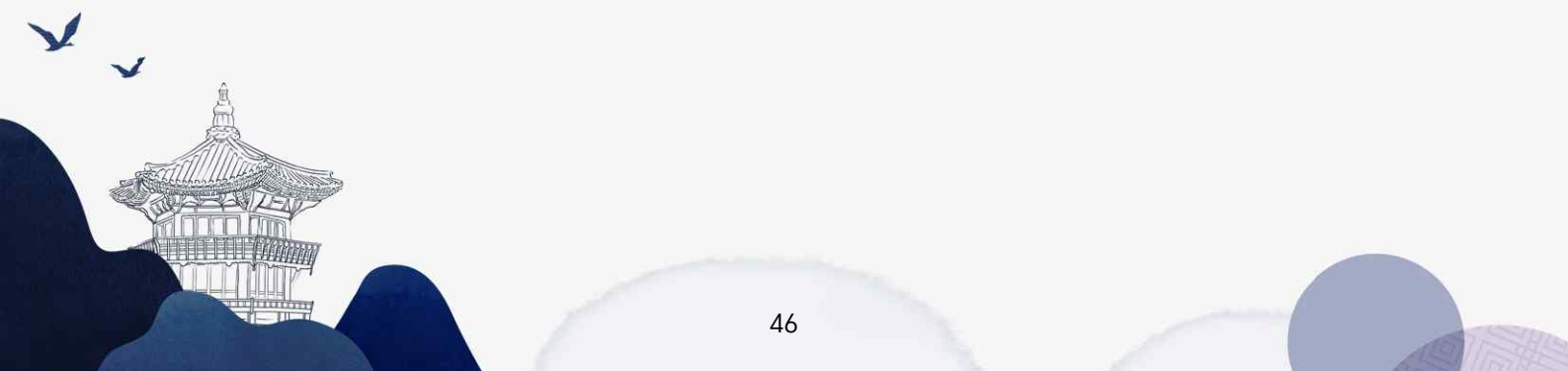


This is the table just mentioned comparing the structure of Taixi Shiwu Qiyuan and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 chapters are from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in the brackets are the cases in which the names and order are different in Taixi Shiwu Qiyuan. In 'items' column, I organized the entries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three categories. The first is the items of which Jang Jiyeon accepted the description from Taixi Shiwu Qiyuan as the origins of Western objects. Of course, he added the descriptions of the 'things of the East' to them.

The second is new items added to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if they are the 'things of the West,' I underlined them. As for these items, we can tell that the origins of Western objects are described based on literature other than Taixi Shiwu Qiyuan. The third is items that transferred to another chapter. For example, the Calendar is in Science chapter of Taixi Shiwu Qiyuan, but it is transferred to Astronomy chapter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The last chapter, Chapter 28 Customs and Miscellaneous Subjects, contains completely different contents from the Miscellaneous Subjects chapter in Taixi Shiwu Qiyuan. It contains customs, including seasonal customs, so we might say that the term 'miscellaneous subjects' does not define the content.

Jang Jiyeon could not directly take the descriptions in Taixi Shiwu Qiyuan. Since Man'guk Samul Giwon Yeoksa used Korean along with Chinese characters, 'translation' was necessary. In this process, errors occurred in the description of objects that the author did not know exac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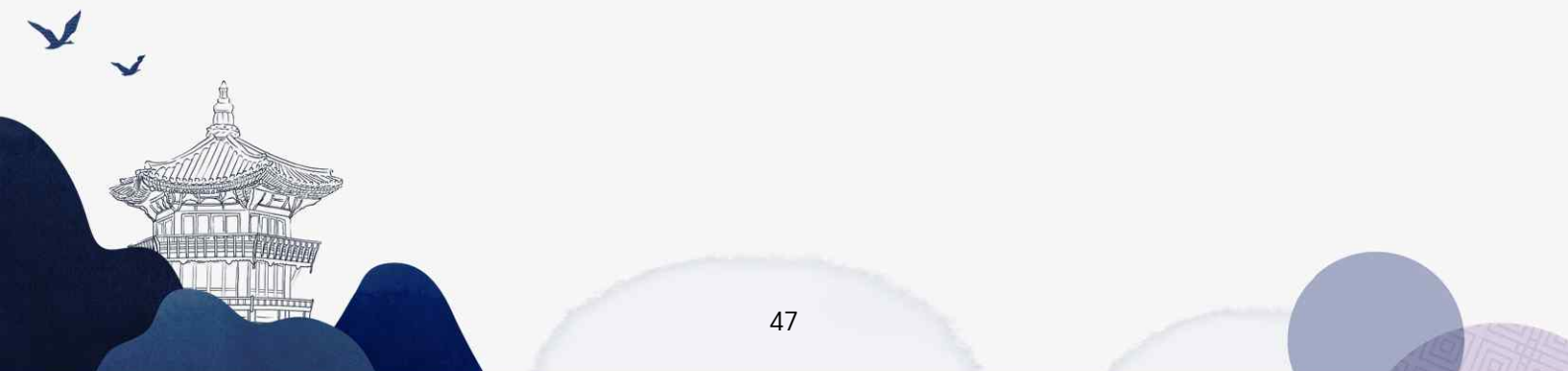




Let's look at one example. Above is Taixi Shiwu Qiyuan, and below is Man'guk Samul Giwon Yeoksa. Regarding the object 'Amotalang gun,' or 'Amutalang gun,' Jang Jiyeon provided an explanation that it was invented by 'Amuttalang of the Wiryeongjwa,' which was a misrepresentation of William George Armstrong. The translator of Taixi Shiwu Qiyuan changed the katakana notation of Shibue to Chinese characters, and at this time, he used the Chinese character 之, which is commonly used to mean 'of.' 'Amutalang gun' is 'Armstrong gun,' and Jang Jiyeon, who was not familiar with it, committed the mistake of translating the letter included in a name into 'of.' Errors are not good, but the existence of these errors can be interpreted as clues to the author's active role.

So far, we have reviewed the foreign elements involved in the writing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 first paid attention to Nishimura Shigeki's Saigoku Jibutsu Kigen to study this, and later Choe Jeonghun, in a follow-up study, found Shibue Tamotsu's Seiyu Jibutsu Kigen and its Chinese translation, Taixi Shiwu Qiyuan . There is still more to be studied, but recent research has advanced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In the next session, we'll look at what traditional elements affected the writing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9-4****Writing Background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Traditional El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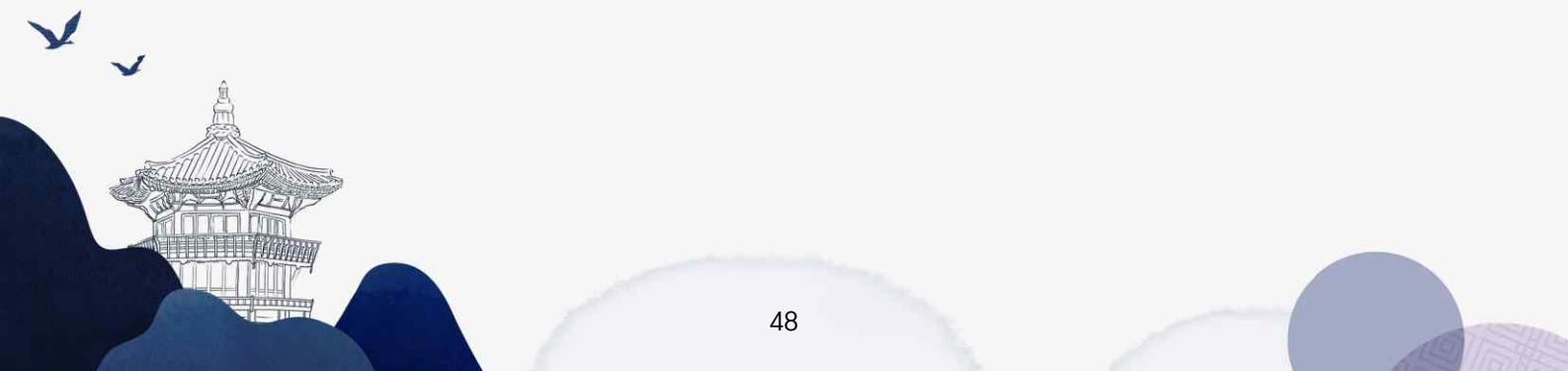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the foreign elements involved in the writing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This time, we're going to look at some of the traditional elements behind the writing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We learned earlier that Taixi Shiwu Qiyua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riting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However, as we have already seen,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not just a translation of Taixi Shiwu Qiyuan. Jang Jiyeon added new items, as well as descriptions of 'the origins the Eastern things,' and changed the structure of chapters and items, which corresponds to the structure of knowledge.

More fundamentally, it is also necessary to think about why he became interested in the 'origins of things around the world.' Of course, it is also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intellectual background that enabled him to describe 'the origins of the Eastern things' in detail.

Now we're going to deal with this by looking at the traditional elements that made it possible to write Man'guk Samul Giwon Yeoksa.

One of the backgrounds of Jang Jiyeon's interest in the theme of the 'history of the origins of thing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nterest in the origins of objects or the origin of all things was prevalent in pre-modern East Asia. Of course, the question of origin may be one of the universal questions of humankind, but a lot of systematic writings on this subject were produced in pre-modern East Asia.





Specifically, an 18th century scholar Igye Hong Yangho wrote Manmulwonsi (the Origins of Everything), for example. In this book, the chapters are divided into Angwan, Buchal, Geunchwi, Wonchwi, Japmul, Chandeok, and Byeonmyeong, and all things are placed under them and their origins are stated. Angwan means 'look up,' so it refers to the sky above. Also, Buchal means 'bending down,' so it refers to the land below. If you add up Geunchwi that deals with human, the composition makes up 'cheon-ji-in,' which is heaven, earth, and humans.

But the way of finding the origin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at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Because abstract or philosophical explanations are central to the description, it is rare to describe the origin of an object by paying attention to specific events. For example, about the reason why the eyes become brighter at night and ears during the daytime, it says, "The eyes are modeled after the sun. That's why we don't see much at night. The ears are modeled after the moon. Therefore, at night, we can hear far away."

It also says, "The hat has a raised part because it is modeled after the sky. The clothes have both sleeves because they are modeled after a person. The skirt is four pok wide because it is modeled after the land." Like this, it explains the reason why an object takes a particular appearance using the concept of heaven, earth, and men.

Of course, there were some writings dealing with the specific origins of specific objects. It's common in pre-modern yuseo (classified reference book) that a description of an item begins with its origin. Since various yuseo were distributed in pre-modern East Asia, that knowledge of the origin of things must have also been widely distributed. Ahuiwonram (Children's Book of Basics), a yuseo published in Joseon in 1803, has a separate chapter called 'Changsi,' which means the origin.



Another yuseo, *Origins of Things* compiled by Gao Cheng of the Song Dynasty, clearly expresses the interest in origins in the title. *Origins of Things* initially consisted of 217 items, but they eventually increased to 1,764 as later generations expanded the book. Although the names of 55 sections seem somewhat unusual, the items included here are 'sa (events) and mul (things)' in general. The book ended up containing such a vast scale of the history of origins that people praised it saying, "there is nothing whose origin has not been examined in this book, from Go or Xiangqi, to insects or beasts." Of course, the origins in the book have not been clearly verified. Yuseo has the property of extracting and organizing data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so the 'origins' of *Origins of Things* mean that they were recorded as the 'origins' in the previous literature.

It is not clear whether Jang Jiyeon read *Origins of Things*. However, its contents come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and some of them are cited in other yuseo later. So it is not strange that Joseon scholars knew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 without reading it. Jang Jiyeon was no exception.

He must have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used the tradition of 'yuseo' when compiling *Man'guk Samul Giwon Yeoksa*. Yuseo is a book that collects data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and categorizes it according to a certain standard. The classification and collection mentioned in the advertisement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actually the basic attribute of yuseo.

Considering that most yuseo categorize their contents by subject, it would not be too wrong to say that *Man'guk Samul Giwon Yeoksa* also has a general system of yuseo. Of course, you can tell that Nishimura, Shibue, and the compilers of *Taixi Shiwu Qiyuan* were naturally able to adopt the composition that wa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 of yuseo.



In pre-modern Korea, Chinese yuseo were used, while others compiled their own if necessary. From Daedong Unbugunok (Encyclopedia of Korea Arranged by the Rhymes of the Entries) to Imhapilgi (Records under Forest), a variety of yuseo were compiled, some of which were published and widely distributed. Especially, Jibongyuseol (Topical Discourses of Jibong) was cited several times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as such, yuseo of the previous generation were important materials for completing Man'guk Samul Giwon Yeoksa.

Jang Jiyeon also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of yuseo himself. As mentioned earlier when we looked at Jang Jiyeon's writing career, he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of Jeungbo Munheon Bigo (Supplementary Reference of Documents), which summarizes the state's system and culture. Completed in 1906 and published in 1908, Jeungbo Munheon Bigo is a kind of yuseo compiled by the government, with a vast scale of 16 go (studies) and 250 volumes. Jang Jiyeon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as chanjip (collator), and you can find his name, 'the former official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Jang Jiyeon' on the list presented here.

It is not clear what topic he wrote. However, the experience of compiling a yuseo with such a vast scale must have been an asset in writing about various Eastern objects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He might have directly utilized the knowledge or data obtained during the compilation of Jeungbo Munheon Bigo.

It is presumed that Jang Jiyeon also used Jeungbo Munheon Bigo directly for the compila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Although he never directly mentioned Jeungbo Munheon Bigo as a reference, there are cases where he made errors while quoting sentences of the book, as well as the cases he repeated the errors in the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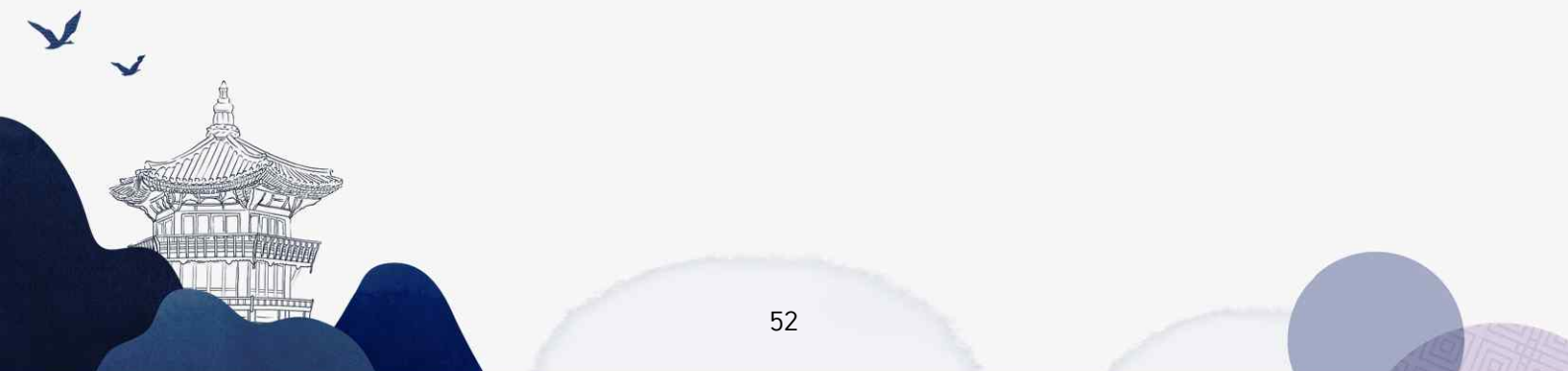


Let's look at one example. [1] is taken from Man'guk Samul Giwon Yeoksa and [2] from Jeungbo Munheon Bigo. [2] presents the translated text first, followed by the original Literary Chinese. [1] says that Saseong Yi Sun first built a gwancheongi, or astronomical observation instrument called 'illyunsun' in the 20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 [2] says, "In the 20th year of King Jungjong's reign, Saseong Yi Sun obtained Ge Xiang Xin Shu (New Elucidation of the Heavenly Bodies) from China, and in the book was an illustration of an astronomical observation tool called 'mokryun.' Yi Sun studied the book and made it, and it was exquisite. It was ordered to be placed in the Office of Astronomy."

Jang Jiyeon wrote this passage under the entry 'Gwancheongi,' and he must have intended to select only essential information from the description of Jeungbo Munheon Bigo. The problem is that in the phrase 名曰目輪 純按書製進, he mistook 目(mok, eye) for a similar letter, 日(il, sun), and the person's name, 純(Sun), for part of the instrument's name. This is an error that can be made when using the text of Jeungbo Munheon Bigo.

So far, we've looked at the traditional elements that affected the writing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pre-modern East Asia, there was academic interest in origins of things, expressed in yuseo such as Origins of Everything and Origins of Things, and Jang Jiyeon, a traditional intellectual, was familiar with yuseo as a genre of traditional writing, and he also had participated in the compilation of state-published yuseo.

In the next session, we will reconstruct the writing process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based on the foreign and traditional elements we have looked at so far, examine its significance in academic history.





9-5

**Writing Process and Significance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Academic History**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the traditional elements that affected the writing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this session, we will take a look at the writing process and the significance the book in academic history.

So far, we have looked at the background of the compila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by examining Jang Jiyeon's literary career, and the foreign and traditional elements in the writing of the book. Now, based on the discussion so far, let's reconstruct the writing process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Earlier, I pointed out that there's evidence that Jang Jiyeon described the origin of Western objects by referring to literature other than Taixi Shiwu Qiyuan Shiwu Qiyuan, and we will review some specific cases related to these issues while reconstructing the writing process. Based on this, I would also like to think about the academic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order to reconstruct the writing process of the book, let's first summarize what can be identified and w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Among the direct and indirect references, the first that can be identified is Taixi Shiwu Qiyuan, a Shanghai translation of the writings of Japanese author Shibue Tamotsu. Jang Jiyeon must have created the system of his book based on the structure of knowledge presented in it, and gained much knowledge relating to the origins of Western objects through this book. As for the description of the origins of Eastern objects, Yi Sugwang's Jibongyuseol (Topical Discourses of Jibong) and Yu Deukgong's Gyeongdojapji (Miscellaneous Records of the Capital) were the examples that directly mentioned as reference. Jibongyuseol was discussed earlier when I mention the tradition of yuseo (classified reference book). Gyeongdojapji was actively used while Jang Jiyeon described Chapter 28, Customs, and he must have decided it was necessary to study it more even after the publication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February 1909, Jang Jiyeon wrote the preface to Gyeongdojapji, where he expressed his ambition to write a kind of history of customs based on the book.



In addition, there are many traces of reference to Korean and Chinese history books and yuseo,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conclude if he directly refer to and quote specific books. This is because he tended not to make distinction between direct citations and recitations from other literature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Except for a few cases of which the reference can be inferred from error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description comes from original literature or recounts what is cited in the literature such as Jeungbo Munheon Bigo.

Also, there is a lot of knowledge that is difficult to check or guess the original source. In particular, it is not easy to find the source of 'the origins of Western things' that are not listed in Taixi Shiwu Qiyuan. The last item of Chapter 22 the Machine, 'Device,' if you examine the notations of proper noun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y were transferred from another literature other than Taixi Shiwu Qiyuan, but it has not been identified yet.

However, if you look at Jang Jiyeon's overall writing method, you can conclude that this demonstration of knowledge is likely to be the result of his chagi or pilgi. 'Chagi (memo)' or 'pilgi (note-taking)' is a kind of reading logs or book reviews, where you write down necessary phrases or your own thoughts while reading a book or any other document.

Jang Jiyeon kept on writing 'abstracts' of articles from newspapers or magazines, and sometimes made a kind of 'scrapbook.' Volumes 7 and 8 of his Jang Jiyeon Jeonseo (Complete Collection), the collection of Jang Jiyeon's writings, contain materials that are believed to be his chagi, pilgi, or newspaper abstracts written by himself. A review of this will be necessary to identify the origin of his knowledge. There is no specific format in the materials contained in Volume 7 and 8, that is, the chagi or pilgi by Jang Jiyeon, but we can guess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m through the following two types.

The left one is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of each item, and the right one copies the original text and records the date below. Some documents in the format on the right has the name of the newspaper or magazine in addition to the dat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newspapers mentioned include those published in China.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dates include the time when Jang Jiyeon stayed in Vladivostok and when he stopped in Shanghai. Jang Jiyeon might not have just written articles for the Haejo Sinmun then. If you look at the diary of that time, you can guess that he got various books there and read them. This is part of the document titled 'Gwanmunchorok (the Gateway Abstract).' It was written in 1908, on the way from Vladivostok and through Shanghai. It's titled 'Military Airship,' which refers to ships moving in the sky, or means of transportation from hot air balloons to airplanes. Let's read the translation below the text on the right.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recent military items: tethered balloon, moving balloon, and airship. The first type is almost complete, but the second and the third ones are not yet fully developed. In the UK, the capital of 600,000 won was used to transport 5,000 people. Each airship has one pilot, 100 engineers, and 200 officers, and is equipped with weapons. The most difficult task is to master steering.

It says that the tethered balloon was well developed, but the moving balloon and the airship were not yet well developed, and describes specifically that the UK was working to complete them. It's hard to find out what kind of airship the UK was building and training people for, and it wasn't unusual at that time for such rumor-like news to appear in the newspapers. The entry Airship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has similar information to the article copied in the Gateway Abstract. I'll read it.

The airship was recently invented by the British. Each ship carries one pilot, 100 engineers, 200 officers, and a number of bombs and weapons. which, In wartime, are dropped in enemy lines. Now, the UK is making it as a test at a cost of 600,000 won. The structure has not yet been fully developed and is still being studied.





There are some unnatural parts, such as assertion that the British were the 'inventors,' but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record of the Gateway Abstract is deeply related to the description of this part, with the details such as the cost of '600,000 won.' It's unusual to record the timing of the invention as 'recent,' which is clearly different from other entries where he specifically states the years or how many years ago. He seems to have had no choice but to describe it like this, since no more information than 'recent' could be found in the records of the Gateway Abstract. Another factor that influenced the writing process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censorship. Censorship is usually done by deleting problematic phrases related to political or social customs, but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it seems to have been done in a way that required addition rather than deletion.

On the left is the cover of the manuscript in Jang Jiyeon Jeonseo. There is a seal that says that the manuscript is censored and its publication is authorized. You can see that it's not just a manuscript, but a draft submitted for censorship. On the right is an example of the requirements for specific modification made during the censoring process. They asked for correction with an attachment, and the censor is Oda Shogo. He was a historian who worked as a professor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Let's take a look at how Oda Shogo's demands were met. This is the entry 'Mirror,' and it says the origin of a mirror stand is added to it. First, Jang Jiyeon presents the origin of mirrors recorded in Qian Que Ju Lei Shu (Classified Reference of Solid Mind) and Cheonjunggi (Records of Heaven). Jang Jiyeon could have quoted from them directly, or he could have recited the records of these texts from other books. I discussed this briefly earlier. Next, he mentions 'Gijagyeong (Gija's mirror)' as an example from Joseon.

Below that, we see a section that reflects Oda's demands. It mentions the Three Sacred Treasures of Japan, one of which is the mirror. It's not that awkward, as other items have mythological contents. Rather, it can be seen as supplementation.



However, it is somewhat awkward to add a long description of the sword Chojigeom (Kusanagi no Tsurugi), which is far from a mirror. It's probably because he had to accommodate the censor's demand, but I don't think it was very helpful for perfection of the book. However,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damage was done by deleting certain contents. Again, below the Japanese example, we see a record of the Western mirror. What could be the significance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In the beginning of the lecture, I looked at some of the evaluations of this book and told you that some of them were a little excessive, and now let's look a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book based on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writing we have explored so far.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a book of significance in the historical context,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academic history.

First, it is the 'achievement of a traditional intellectual at a time when foreign knowledge was flooding in.' Of course, it would be meaningful to translate foreign literature as it is or organize what you learned from foreign schools, but in such cases,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intellectual struggles and achievements like this book.

Second, it is an example of 'knowledge distribution at the world or East Asian level.' As we saw in this lecture, we can read the pattern of the distribution of knowledge from the Netherlands to Japan and China to Korea in books with varying types and languages.

Third, it is an example of a 'traditional yuseo in transition.' You can find out how traditional yuseo responded to an era when various modern dictionaries, including language dictionaries and encyclopedias emerged.

Fourth, it is a 'document that offers the possibility of a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in early Korean studies.' A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is an essential element to objectify academic research. Of course, if you ask how much Man'guk Samul Giwon Yeoksa influenced academia at the time, it might be difficult to give you a positive answer. However, you can say that it presented a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as an available option, although it was not adopted properly.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book with many limitations. In a way, you might say that the book itself is incomplete. Although the title says Man'guk (the whole world), it only dealt with East As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re are many inaccurate or wrong descriptions.

And I think the author was not satisfied with this, either. The Yearbook also shows traces that he considered a kind of revision in 1916. However, he couldn't actually do it, and instead, he prepared to write books that covered only Korea, such as Joseon Yugyo Yeonwon (Origin of Confucianism in Joseon) and Daedong Siseon (Poetry of the Great East). As of 1916, the generation of Japanese international students began to work, so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Jang Jiyeon, who had a traditional academic background, to surpass them in the subject of the 'whole world.' The existence of incomplete or inaccurate descriptions in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clearly a limitation in terms of perfection, but this limitation can be interpreted as the limit of the early 20th century in that it contains the 'common sense' of the time. Even if it turns out to be wrong today, sometimes such errors themselves can be clues to understanding th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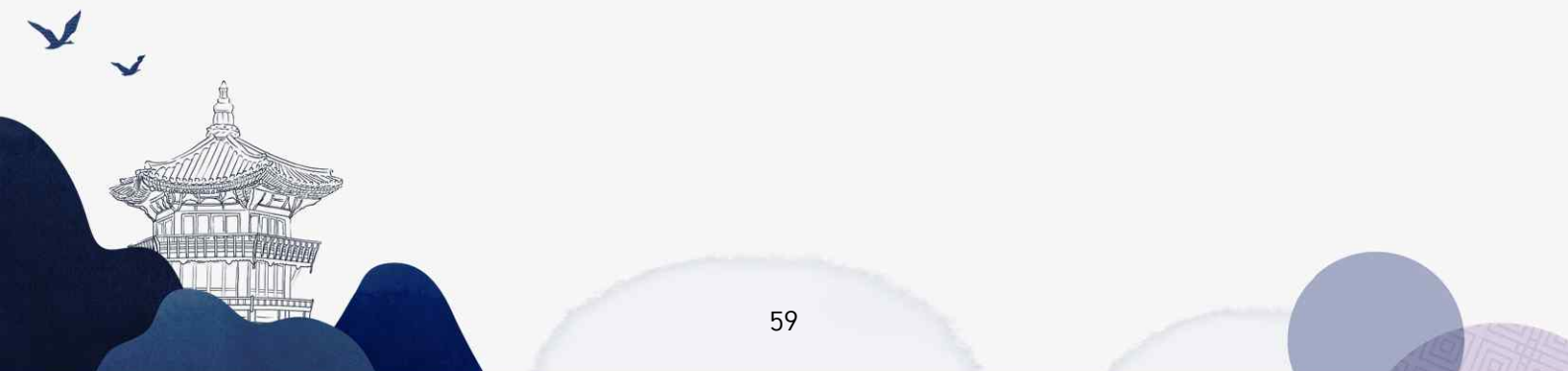
One of the examples of common sense in the early 20th century is the description of the inventor of the Japanese alphabet, Katakana. The fact that the Japanese censor didn't point it out, the knowledge was probably being circulated in Japan, too. In fact, this knowledge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 of Chinese textbooks of the time.

Another example is an understanding of the Arabic numerals. It described the numbers as originating from the Greek alphabet, which would demonstrate an idea that Arabic people invented them. But today it is widely known that Arabic numerals originated in India, and the Arabs played their part as intermediaries, as many textbooks say. Examples like these, if used wisely, could be a clue to understanding Korea and the world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this lecture, we explored what kind of book Man'guk Samul Giwon Yeoksa is and how it was written. And we looked at its significance in the academic history and limitations, as well. We have not yet looked at the details, so it would be difficult to actively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book.



In the next lecture, we'll read some parts of the book together and think about their meanings. I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in the active reading of Man'guk Samul Giwon Yeoksa, keeping in mind the topics covered in today's lecture.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9周

《万国事物纪原历史》的理解

9-1

《万国事物纪原历史》是一本怎样的书？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万国事物纪原历史》课程主讲的黄载文。这节课是我们的第九节课，以“《万国事物纪原历史》的理解”为主题。

在正式进入课程内容学习之前，我们先一起来基于这部出版于20世纪初期的作品《万国事物纪原历史》的题目，推测一下作品的内容。书的题目是由“万国-事物纪原-历史”这几个词语构成的。万国，是指不止一个国家，而是以全世界作为对象的意思，以此作为前提条件。

看起来有必要对万物的起源稍作说明。事物这个词语将事情（事）与物品（物）两者的意思合二为一，是指我们周边存在的所有东西。是想要探寻周边一切事物的起源。并且，所谓历史，是指根据时间顺序进行叙述。

现在，我们来具体看一下《万国事物纪原历史》到底是一本怎样的书。

首先，我们来看看《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的封面和版权页。在封面上，除了有书的题目和这本书的作者“崇阳山人张志渊”的信息，还标识了出版方为“皇城新闻社”。在版权页上，除了书的价格信息，还标识了印刷日为“隆熙3年5月20日”，出版日为“隆熙3年8月15日”。

隆熙3年是1909年。从文化的角度来看，这个时间节点是既留存了传统文化，又有新文化的流入，即外来文化和文化事物正式流入。这是一个前近代与近代文化相交融的时期。

我们有必要先回忆一下这个时期出版的书籍。需要注意的是这部作品的印刷日和出版日之间有3个月的时间差异，是因为作品在出版前需要一定的时间进行检阅和部分内容需要修正。

封面和版权页标识的作者张志渊是一个怎样的人物？左侧是与封面有着相同信息的《万国事物纪原历史》的内纸，右侧是张志渊的样子。1864年，张志渊出生于庆尚道尚州，学习传统学问和汉文语句。



俄馆播迁以后，通过以邀请高宗回宫为主题的《万人疏》这部作品名声大振。在那之后，作为史礼所的职员，参与了《大韩礼典》的编撰，这部作品以皇帝国的礼法为主要内容，1902年，其出任了《皇城新闻》的社长。即，作者凭借自己丰富的传统学问知识和撰写的文章，受到了认可，参与到新闻出版的相关活动之中。

为什么要出版 《万国事物纪原历史》这本书？在书籍出版的时候，写了文章告知普通出版的目的或原因，附于作品的前面或后面。附于书籍前面的文章被称为序言，附于书籍后面的文章被称为跋文，一般书籍作品都会有序言和跋文。

虽然《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没有序言，但我们可以推测出版的目的，因为还留有报纸的广告。因为这是一部由皇城新闻社出版的作品，在《皇城新闻》上对于这本书的广告，从1909年一直持续到了1910年。这里提到两个类型的广告，形式虽然有所不同，但文案是一样的。

我们来看看广告的内容。上面是原封不动摘抄的广告原文内容，下面是用现代的语言对广告核心信息的解释。“在东西方各国初次创造这些古今事物的人的名称，以及与之相关的，变革的历史”。这部作品是“博学广知”的资料，读者只要打开书本，就能获得千古的事物相关的知识。

那么读者是谁呢？本作品预想的读者为绅士，教育家，演说家，新闻记者，学生，总而言之，预想的读者是知识分子。这个广告最引人注目的内容是“分类收集”这个信息。按照一定的分类标准，进行资料的收集，具备近代的百科全书，或前近代东亚的类书的性质。由此可以推测，这本书形式上的特征或者历史脉络。

《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虽然并没有广为人知，但在学术界从很早开始就备受注目。对于学术界的评价，我整理了以下几项内容。

第一，从百科全书或者类书的角度来看，这是近代社会第一部出版的百科全书，融合了“西方”和“我国”的知识。虽然也有出版过像《芝峰类说》等前近代的类书，但是与近代百科全书相似的文献作品，在这本书之前并没有出版过类似的作品。那个时期，尽管在其他作品里也有对于“西方”和“我国”知识的介绍内容，但对比两者的内容，很难发现有重复的事例。



第二，从史书的角度来看，这本书独立地撰写了世界史，具有十分重要的意义。对于世界史的撰写，通过翻译日本或中国的译本，重新翻译西方的历史书籍，然后将其出版，这是当时普遍存在的做法，现在进入了独立撰写的阶段。在那时，“独立”这个词具有怎样的意义，对此我们要更深入地思考。对此，我们将在后续的学习中边探究撰写过程，边深入思考。

第三，从叙述的内容来看，同一时期在其他文献中较难看到的“特别知识”也被收录于此部作品，也可以将其评价为“特殊的文献”。事实上，《万国事物纪原历史》因为具有这一特征，所以其内容涉及了多个专业领域。例如，在书中初次介绍了“抒情-叙事-戏剧”这种文学体裁的三分法，还有“社会学”这一学科领域。

作者并不是留学生，或者熟练掌握西方语言的人，所以在表达上多少会有些不自然的地方，但是这本书确实是第一本包含大量知识内容的书籍。虽然介绍了很多西方的科学和文化，有像天气预报或罗马的小说，潜水钟和类似的潜水道具等具有代表性的例子。对于传统文化，这部作品提出了在其他文献中难以看到的独特的见解，作品里面也包含了火锅的由来等相关事例。

我们来看看介绍社会学这门学科的内容。右边有原文，内容的文字是竖着写的。把句子修改成了符合现代用语习惯的，把用汉字标识的人名替换成了现代社会通用的标识，翻译的内容如上所示。

并且，如果附有下方所示的简要说明的话，那么将更容易理解。虽然在现代社会中，这种内容很难被视为特别的内容，但这是在1909年，传统学问盛行的背景下，知识分子写的文章，如果考虑到这点，那真的是十分特别的内容。

现在，我们来看看这部作品大致的结构。总共由28章498个项目组成，一般和“类书”的结构相似。大的项目根据不同的主题进行分类，在其下面会设置子项目，这和按照项目叙述的“类编类书”的构成方式相似。

对于章和细项构成的内容，我们下节课会进行仔细地探究。我根据各自作品原文的标记，对于章和项目相关的内容整理了表格，对于书籍的内容，希望大家可以自行进行推测。对于意思比较难以理解的词语，在 []里标注了现代语言的解释。首先是从第1章到第6章的内容。我们暂时停在这个画面，一起来看一下。



下面是第7章至第12章的构成。其中，第9章的“仪仗”是指在仪式上使用的道具，在这一章中，比较奇怪的是，只提到了东方的仪式。

接下来是第13章至第18章的构成。服饰是指衣服。

接下来是第19章至第23章的构成。在第21章音乐和第22章机器中，东西方的事物都一起被记载。第23章的“器用”，可以理解为各类型的生活工具即可。最先出现的是“度量衡”，在这个项目中，记载了包括尺子和秤在内的东西方的测量工具的历史和单位。

最后是第24章至第28章的构成。第28章的“风俗杂题”可以理解为风俗即可。

这节课我们简单地学习了《万国事物纪原历史》是一本怎样的书，因为什么原因受到关注，以及其构成相关的内容。通过章和项目相关的表格我们可以推测出，其与前近代的“类书”有着相似的结构，希望大家也能记住这点。

下节课我们将探究作者张志渊的创作活动与《万国事物纪原历史》之间的关系。



9-2 张志渊的创作活动与《万国事物纪原历史》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万国事物纪原历史》是一本怎样的书，，因为什么原因受到关注，以及其构成相关的内容。

这节课我们将一起探究作者张志渊的创作活动与《万国事物纪原历史》之间的关系。首先，我们仔细地看一下张志渊的创作活动，再思考一下《万国事物纪原历史》的编撰背景。

在前面我们提到过张志渊凭借自己丰富的传统学问知识和撰写的文章，受到了认可，参与到新闻出版的相关活动之中。张志渊发表了很多类型的文章，也出版了书籍。出版了9,700多页的全集，甚至有一些文章只有题目被流传了下来，而没有被收录在全集里面，由此可知其写的文章数量之多。

我们在研究张志渊的创作活动的过程中，同时也会探讨《万国事物纪原历史》的地位，以及思考一下作者撰写的动机。

张志渊是一个凭借文章撰写而出名的人物。就像生活在传统与近代共存时期的人物一样，张志渊有多重身份，像诗人，学者，作家，官僚，教育工作者，新闻人等等。而这些身份相关的活动有一个共同点，那就是全部都与“文章”息息相关。

并且，我们考虑到，在进入近代以后，为了保证这些活动的顺利进行，必须存在要有发表刊登文章的地方。张志渊和新闻社之间维持着直接或间接的关系，可能也为其创作多部作品创造了条件。

像前面我们提到的那样，1902年，张志渊出任了《皇城新闻》的社长。在这之前他也担任了主编一职。张志渊离开皇城新闻社的契机是其1905年写的社论。11月20日，在报纸上刊登的《是日也放声大哭》，即，这篇社论是“这天，我们放声大哭”的意思。这篇社论是一篇有名的文章，主要内容是逐一指出签署于11月17日的乙巳条约的不合理性。

因为这篇社论，《皇城新闻》被迫停刊，张志渊也离开了新闻社。在那之后，其活跃于学会和地方新闻社，但是其失去了以前安稳创作的基础。



但是,《是日也放声大哭》这篇文章并不是张志渊的绝笔之作。他还写了很多文章,还出版了很多时至今日也具有参考价值的书籍。他会给和朝鲜总督府有直接关系的每日申报社定期写文章,这也成为了他人生转折的一个契机,这个推论看起来也是正确的。

张志渊不是作为正式的作者,而是作为“客卿”,为《每日申报》写文章,而在1914年12月出版的报纸内容,在当时更是轰动一时。从政治的角度来看,用具有批判性的眼光来看待了很多问题;从创作活动的角度来看,可以说是为持续性的创作活动打下了基础。

我们现在以撰写为中心,来看看张志渊的生平活动。首先看看他在1910年以前的活动。张志渊凭借着《万人疏》这部作品名声大振,作为史礼所的职员,参与了《大韩礼典》的编撰。他认为大韩帝国需要具备作为皇帝国的威严,所以着手参与了相关计划。在那之后,还参与了《增补文献备考》的编撰。

《增补文献备考》是一部有关于国家制度和文化产物的文献,是英祖时期编撰的《东国文献备考》的增补版本。1903年,设置了撰集厅开始进行编撰,1908年开始进行书的出版。

以《皇城新闻》为代表的报纸,如前面所述,在离开皇城新闻社之后,参与了大韩自强会等学会,为学会志写了很多的文章。

并且,在1907年前后,多数的单行本都进行了出版,其中有相当一部分是和徽文义塾有关的,为其编撰的教科书。虽然不是在徽文义塾里进行编撰的,但是以女性为对象的教科书《女子读本》或被称为“新小说”的韩语编译小说《爱国妇人传》,直到今日也备受关注。

1914年,作为《每日申报》的“客卿”,张志渊重新开始了创作活动。尽管在此之前,他也有为《庆南日报》写文章,但当时的环境相对没有那么稳定。1915年,与高桥亨展开的争论,对于其之后的创作方向的调整有很大的影响。

并且,《朝鲜儒教渊源》,《逸士遗事》,《大东诗选》等在现代也颇具参考价值的书都是在这个时期进行编撰的。据推测,这些作品当时在《每日申报》都进行了连载,并且每日申报社在资料收集和宣传等方面提供了支持。这些著作与《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有所不同,它们将重点聚焦在“我们的文化”上面,大家要记住这一点。



我们把张志渊的创作活动分为了两个时期来看，收集了其关于韩国的历史，文化，地理等内容的叙述资料，关于其在“韩国学”领域备受瞩目的著作内容基本都有提及。但是，到目前为止，我们还没有提及课程的主题《万国事物纪原历史》，也没有提到同一时期的其他著作作品。在《万国事物纪原历史》出版的1909年前后这个时间节点，张志渊离开了皇城新闻社，但还未与每日申报社建立合作关系。

而张志渊在出版《万国事物纪原历史》之前的几年时间里，积累了重要的经验。也有一段海外经历。1905年7月至9月，参与了由闵泳绮主办的日本使节团，访问了宫内省，新闻社，铸币局，银行，制纸所，印刷局等地方，与滞留在日本的人士进行了面谈，主要是以留学生为代表的，和东学相关的人士。其中，7月30日，在博物馆参观了广开土王碑文，并以此为契机，在国内报纸上介绍了广开土王碑文的相关内容。

1908年，在 海参威的韩国人新闻社“海朝新闻社”担任主编。在1905年11月，因为《是日也放声大哭》这篇文章离开皇城新闻社后，虽然其也有参与学会活动，但是并没有像以前那样积极地在新闻界进行创作活动了。

受到海朝新闻社聘用的张志渊，于1908年 1月出发前往海参威，到达海参威的时间稍晚于计划时间。3月2日发表了“新闻宜读论”，即，论述了新闻需要被阅读的观点，在张志渊的日记中也提到，因为是专门用国文进行撰写的，所以其在撰写时也感到有一定的难度。

之后的几个月，张志渊陷入了和当地人士的纠纷之中，即使这样，还是依然继续在海朝新闻社进行读书和文章撰写的活动。但是，最后这个报纸被停刊了，他也离开了海参威。张志渊并没有立即回国，而是在上海短暂地停留，他在上海访问了具有代表性的出版公司，包括广智、商务、文明在内的书局，购入了一批书籍。同时，在作为东亚知识传播中心地的上海，对于在当地出版和发行的书籍进行了直接地阅览和采购。

张志渊于1908年9月，在上海短暂停留后，回到了韩国。回国以后，虽然其在接受了短暂的调查后被释放了，但相较之前，其活动的约束变得更多了。当然，也有部分原因，是因为他自己也变得更加小心谨慎了。

在第二年1909年，张志渊撰写了相当多的作品。根据张志渊自己撰写的《年报》显示，1909年，创作了10篇文章，以《峤南学会趣旨文》为代表，以及撰写了5本书籍，以《万国事物纪原历史》为代表。在这里提到的文章和书籍，内容篇章都不少，可以推测张志渊在这个时期集中精力进行创作活动。



《年报》里记录的书籍，并不是其创作活动涉及的所有作品。在当时的报纸上，刊登了张志渊撰写的4本书籍的广告，其中《怀中新镜》这本书在当时的《年报》里并没有被提及。

《怀中新镜》作为一部日记手册类型的作品，作品前后部分有标识节气表，地理信息，交通运营等多种类型的信息。根据天气分类印刷的日记原文旁边标有小字，整理了在该日期下发生的事件相关内容。也可以将其视作一种“今天的历史”。

我们可以想象这种整理工作需要付出极大的努力，而张志渊于1908年和1909年在皇城新闻社出版了《怀中新镜》。对于《怀中新镜》的构成和内容，我在2014年发表的《1908年~1909年张志渊的创作活动及其意义》论文中也提到了相关内容。如果大家想要知道具体的内容，可以参考这篇论文。

基于以上我们讨论的内容，可以说张志渊在归国以后更加专注于创作活动。

左边是张志渊自己撰写的《年报》中1909年部分的内容。如我们前面提到的那样，张志渊于1909年写了10多篇文章和至少5本书籍，其中就包含了这本倾注了其大量时间和心血完成的作品《万国事物纪原历史》。据《年报》记载，3月开始编撰，5月完成，但是资料准备的过程应该远比这个时间要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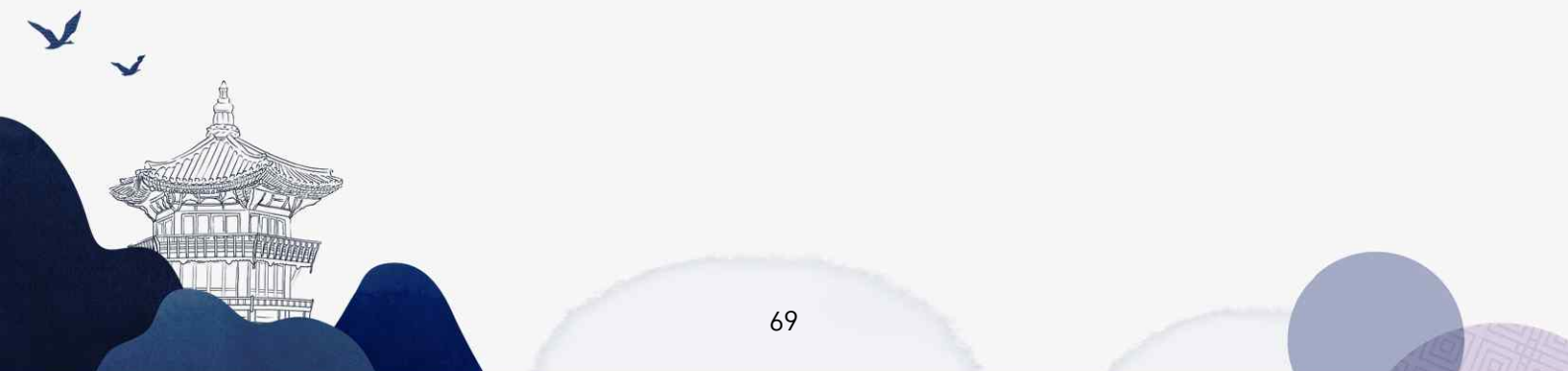
张志渊于1908年9月回到韩国，1909年10月担任庆南日报的主编，在一年多的时间里，发表了许多篇文章，其中既包括了出版发行的作品，也包括了以原稿状态流传下来的作品。并且，还有些作品可能是没有流传至今的。出版的书籍《万国事物纪原历史》，《接木新法》，《蔬菜栽培全书》，还有原稿版本的《花园志》都被收录在张志渊的全集之中。我们可以看到书籍实物都是具有一定份量的，在编撰过程中作者也扮演着十分重要的角色。

其中，有很大一部分内容是基于作者自身的海外经历，以前在新闻界的活动经历，以及官方编撰书籍的经历，获得的知识和阅读的文献，进行撰述的。和以前写的书籍相比，这部作品内容的政治色彩相对较弱。

这节课，我们全面地整理了张志渊的创作活动相关的内容，学习了与《万国事物纪原历史》编撰和与之相关的海外经历，以及其回到韩国之后担任主编的经历。各位同学，我们可以一起思考一下，《万国事物纪原历史》在张志渊的创作生涯中占据了多么独特的位置。



下节课，我们将聚焦于 《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本身，一起探究一下作者的创作背景，看看受到了什么外来文化元素的影响。





9-3

《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背景：外来文化元素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全面地整理了张志渊的创作活动相关的内容，学习了与《万国事物纪原历史》编撰和与之相关的海外经历，以及其回到韩国之后担任主编的经历。这节课，我们将聚焦于《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本身，一起探究一下作者的创作背景，看看受到了什么外来文化元素的影响。

在前面几节课我们学习了《万国事物纪原历史》是一本怎样的书，现在对这部作品有着怎样的评价，以及这部作品在作者张志渊的创作活动中所处的地位。现在我们基于前面所说的背景，具体地看看这部作品的内容，以及思考一下作者的创作背景。

在分析外来文化元素之前，我们先思考一下作者张志渊处于一个怎样的角色。《万国事物纪原历史》的内容，特别是其中包含的特殊知识，我们可以预想到其受到了外来文化元素的直接影响。即使存在着与其相同的其他文献，作者的角色到底是一个单纯的翻译者，还是突破了翻译的边界，成为了一个编撰者，我们只有仔细评估作者的角色，才能更好地判断书籍的意义。这就是为什么我们要先研究“作者的角色”的原因。

前面我们提到了这部作品受到了积极的评价，例如，“出现了独立的世界史撰述”。作者张志渊有可能通过学习积累了一定的知识，然后独立地撰述了世界史。但这种可能性并不大。因为张志渊不仅没有留学经历，而且也不具备可以翻译传统知识的外语能力。

虽然有人评价作者具备“博学风”的学风，但是其博学的领域还是未能摆脱东亚的水平限制。也就是说，我们很难说明他的学风和他学习这本书籍出现的新知识之间有什么必然联系。

不知道是不是受到这个原因的影响，所以从很早开始就有人怀疑这本书籍是不是一部重译的作品。西方的文献作品在中国或日本进行翻译，然后在韩国对相关作品再次进行翻译，也就是所谓的重译，这在当时也是一种十分常见的形式。

但是，像《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我们也很难说它是使用了译述，即重译，这种包含翻译内容的形式进行编撰的。主要有以下两个原因。第一，在498个项目之中，有相当一部分的项目是同时叙述了西方的事例，以及韩国、中国和日本等东方国家的事例。虽然我们无法准确地得知，但据推测当时中国或日本，甚至是西方都没有出现过与之相同的文献作品。



第二，我们来看看这部作品的整体内容，汉字标识，特别是人名或地名的标识，出现了多种多样的形式。有时候对于同一个事件，也存在着在多个项目中重复叙述的情况，但会出现固有名词的汉字标记有所不同的现象。

我们可以推测，即使真的在日本有相似的参考文献，那肯定也不是一部作品，而是有多部作品。简而言之，即使是译述特定的文献作品，译述内容也会具有相当大的“局限性”。

我们来看看重复使用固有名词的事例都有哪些。我在2012年写的小论文，就整理了这样的事例。虽然在此之后我也想要找到更多的事例，但重要的事例应该之前全部都被涵盖了。

像威廉·卡克斯顿或者爱迪生，很难排除并列的翻译名可能各指不同的人，但剩下的例子，例如麦哲伦，伽利略，希罗多德，亚伯拉罕，雅各，亚述，阿拉伯，亚里士多德等明显就是用并列的不同的翻译名标识了同一个人物。如果这本书是“译述”的方式进行撰写的话，是不太可能出现上面这些事例的。

我们之前有说过2012年的小论文，我在论文中重点关注的书籍是西村茂树1879年编撰的《西国事物纪原》。西村茂树是日本的兰学者，曾是明六社学术团体的一员。在参与明六社学术团体的人员之中，他属于较为资深的前辈。后来，他主张东西方哲学的融合，在教育方面强调修身的理念，这些都是广为人知的事情。

在《西国事物纪原》中，《万国事物纪原历史》中提到的“事物的纪原”这个表述出现了很多次。并且，我们可以发现两者在内容和表述上都有不少相似的部分。但是，两者的差异也不少。首先，我们看看两者的内容量，《西国事物纪原》收录了38章412个项目，版面数高达490页。在《西国事物纪原》中，每个项目的叙述内容量比《万国事物纪原历史》要多，有时甚至不止是针对事物的历史来源进行叙述，甚至还有介绍其现在的用途的内容。

在特定的矿物或植物项目之中，提及了人们初次使用相关事物的“纪原”，对于现在多分布于什么地区以及其特定的用法都做了补充说明。像书的题目一样，《西国事物纪原》这部作品只提及了西国（即西方）的事例，并没有涉及东方的事物，和《万国事物纪原历史》的内容相比具有一定的差异性。



书的序言中，提到了自己是如何获得西方相关的知识的。他写道，“引用的西方文献多达10余本，因为数量太多了，就没有一一列举其名字了。其中，引用得最多的内容是荷兰人奥斯特卢泽编写的《百物原始》。”在“奥斯特卢泽”汉字的旁边，西村还备注了发音。作为兰学者的西村，从荷兰的文献里获得知识是一件很自然的事情。

奥斯特卢泽编写的《百物原始》是一本怎样的书？最近，崔政勋老师指出，这部作品是荷兰人亨德里克·马里努斯·克里斯提安·范·奥斯特卢泽1850年编写的小型百科词典。

从书本的题目可以看出，这是一部内容涉及事物的起源的作品，从这部作品的实物可以得知，这部作品和现代词典一样，是以首字母的顺序进行项目排序的。项目的排列顺序或叙述方式与西村茂树的《西国事物纪原》这部作品有较大的差异。由此可见，西村并不是直接翻译了这本书的内容，而只是“参考”了这部作品。

《西国事物纪原》收藏于现在首尔的国立中央图书馆内。当时已经流入殖民地时期的朝鲜半岛。那么，张志渊是否有读过或参考这本书的内容呢？

我们来看下这本书。在封面部分，标识了刊年的信息。“目录”的形式基本与《万国事物纪原历史》相同，但里面详细的内容完全不同。虽然两本书在篇章的构成上有所不同，《万国事物纪原历史》的项目数量更多一些。就算是同一个事件或事物，项目的名称也可能不一样。正文部分内容叙述的篇幅十分长。第1章天时的第一个项目是行星，而《万国事物纪原历史》的第1章天文的第一个项目是太极。

我们先来说一下结论，张志渊几乎不可能是直接参考这本书来撰写《万国事物纪原历史》的。作出这一判断的原因是，两部作品标记的汉字存在差异。

虽然在很多的项目之中，都有叙述相同的事件或事物，但是张志渊使用的固有名词标记与《西国事物纪原》的汉字标记有差异。张志渊没有必要有意地对汉字标记进行差异化处理。至少不能说他直接参考了《西国事物纪原》这部作品，即便是这样，两者在内容上存在相似性，我们很难说这是个偶然的事件。

如果张志渊参考的书籍不是《西国事物纪原》的话，那么是不是他在撰写该作品时没有参考其他的书籍，这个问题我们有必要再探讨一下。



据推测，澁江保在1894年撰写的《西洋事物起原》这部作品，应该有很大一部分内容是参考《西国事物纪原》这本书的，而从两者的实际内容来看，其与《万国事物纪原历史》的相似性更高。

澁江保是日本的翻译家和作家，在他写的书籍之中，有不少当时在韩国进行翻译的事例。特别是介绍了很多西洋史相关的内容。据《西洋事物起原》的记载，虽然博文馆的“寸珍百种”内容较为简短，但在贵重的100本书籍系列中也有一席之地，作为第46号书初版，在书本的封面上标记了书籍的名称和系列名称。

那么，张志渊是参考了澁江保的作品吗？这个结论比较难成立。澁江保把固有名词主要标记为片假名，只有一部分名词是同时进行了汉字标记。虽然张志渊也有可能把片假名的标记改为了汉字标记，但这种可能性并不大。

澁江保的《西洋事物起原》在出版后不久，1902年，在中国就有人翻译了这部作品。广智书局把这部作品的题目改为“泰西事物起原”后，进行了出版，不久之后，其他出版社也纷纷对此书进行翻译和出版。之前我们提到了张志渊上海之行，而“广智书局”正是他在上海期间前往访问的其中一个地方。虽然在张志渊的日记里并没有提到《泰西事物起原》这部作品。1909年，在其前往广智书局访问的时候，很有可能听过这部作品且对其产生了兴趣。

我们来看看《泰西事物起原》的目录和正文部分的内容。相较于澁江保的原作，《泰西事物起原》这部作品与《万国事物纪原历史》的内容更相近一些。在内容上也是如此，因为在汉字标记上呈现出来相似性。虽然《泰西事物起原》或其原作《西洋事物起原》，都没有和《万国事物纪原历史》的内容完全保持一致。因为它们叙述的内容对象都仅限于西方的事物。

我们假设《万国事物纪原历史》的编撰是参考了《泰西事物起原》这部作品，将两者进行比较的话，张志渊把23章改为了28章，且最少增加了277个项目。有部分的篇章进行了重新划分和内容配置，同时增加或删除了部分项目。还有将某个项目移至其他章的情况。可能是因为作者对于作为澁江保《西洋事物起原》作品翻译版本的《泰西事物起原》这部作品的“分类”有些不认同的地方。

张志渊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新增的项目，很有可能是关于“东方的事物”的内容，但应该不全是这部分的内容。我在2018年发表的《针对万国事物纪原历史的形成过程的重新研究》文章中，有对两部文献作品的内容进行比较，并整理成了表格。在这张表中，张志渊新增的项目之中，关于“西方事物”起源的内容也占据了一定的比例。



如画面内容所示, 这张表是关于之前提到的《泰西事物起原》和《万国事物纪原历史》这两部作品的结构比较。篇章这部分的内容, 是以《万国事物纪原历史》为基础进行的比较, []里标识了在《泰西事物起原》名称或顺序不一样的事例。

在“项目”部分, 《万国事物纪原历史》的项目主要分为三个类型。第一, 对于西方事物的起源, 有参考引用《泰西事物起原》中的叙述内容。尽管在此处, 张志渊新增了对于“东方事物”的叙述内容。

第二, 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新增的项目, 对于以“西方事物”为中心的内容, 用下划线进行了标识。在这些项目中, 他应该参考了除《泰西事物起原》之外的其他文献, 撰述了西方事物起源的相关内容。第三, 关于变更了篇章的项目。简而言之, 历法在《泰西事物起原》中属于“科学”, 而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则属于“天文”。

最后, 第28章“风俗杂题”与《泰西事物起原》中的“杂题”收录的内容完全不一样。在“杂题”中, 收录了以“岁时风俗”为代表的风俗项目, 可见“杂题”这个名称并没有限制收录的内容范围。

张志渊无法直接把《泰西事物起原》的内容照搬过来。因为《万国事物纪原历史》使用了韩语和汉文混用的文体, 所以一定需要“翻译”。在这个过程中, 对于还未形成正确认知的事物, 作者撰写相关内容时肯定会存在一定的偏差。

我们再来看一个案例。上面是《泰西事物起原》, 下面是《万国事物纪原历史》。对于名为“亞母脫朗銃”或“亞母脫朗銃”物品, 张志渊在他的书中写到是“威廉佐의(的)亞母脫朗”发明的, 但这是对中文书中的“威廉佐之亞母脫朗”的错误理解。

《泰西事物起原》的译者把澁江保书中的日语发音翻译成汉字。这时, 作者在人名中使用了汉字“之”字, 在中文“之”常常解释成“的”。所谓“亞母脫朗銃”, 其实是Armstrong Gun, 对此所知甚少的张志渊, 把人名里包含的“之”字替换成了“的”, 于是人名“威廉佐之亞母脫朗”错误地变成了“威廉佐의(的)亞母脫朗”。虽然记载内容有误并不是一件好事, 但是从这些错误之中, 可以看到作者其实具有主观能动性。



这节课，我们学习了《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受到的外来文化元素影响的相关内容。我个人一开始是注意到了西村茂树的《西国事物纪原》这部作品，并进行了相关问题的研究。然后基于崔政勋老师后来的研究成果，发现了澁江保的《西洋事物起原》和中国翻译版的作品《泰西事物起原》的存在。虽然我们的研究还有许多不足之处，但基于最近的研究结果，我们知道对于这个问题的研究，已经取得了一定的进展。

下节课，我们将一起探究一下《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背景，看看受到了什么传统文化元素的影响。





9-4

《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背景：传统文化元素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受到的外来文化元素影响的相关内容。这节课，我们一起探究一下《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背景，看看受到了什么传统文化元素的影响。

我们前面曾提到过，《泰西事物起原》这部作品对于《万国事物纪原历史》的撰写有着不小的影响。但是，就像我们之前研究的那样，《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并没有照搬《泰西事物起原》的内容。增加了新的项目，并且增加了“东方事物的起源”相关的叙述内容，以及对于可以反映知识体系结构的篇章和项目结构也进行了修改调整。

我们要从本质上来看，为什么张志渊会对“万国事物的起源”这个主题产生兴趣，背后的原因是什么。尽管张志渊对于“东方事物的起源”进行了详细地叙述，我们需要思考一下他这样做的背景。

现在，我们来看看使得《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的创作变为可能的传统文化元素，一起来探究一下这个问题。

首先，在近现代的东亚社会中，学者们一直十分关心事物的起源，或万物的起源，这是张志渊对于“万国事物的起源”这个主题产生兴趣的背景原因之一。对于起源这个问题，是人类普遍关心和好奇的一个问题，在前近代东亚社会中，也有不少的著作针对这个主题进行了体系化的研究。

我们来看一个具体的例子，18世纪学者耳溪洪良浩撰写的《万物原始》这部作品。在这本书中分为了仰观篇，俯察篇，近取篇，远取篇，杂物篇，撰德篇，辨名篇等篇章，在其下面有万物相关的内容，针对其起源进行了叙述。

这里所说的“仰观”是“向上仰视”的意思，上方有天。“俯察”是指附身向下观察，指的是下方的地。与谈及到人的“近取篇”合在一起来看的话，则是“天-地-人”这样的结构。

但是寻找起源的方式与《万国事物纪原历史》有一点差异。因为是以富有抽象性或哲学性的阐述说明为中心，所以主要关注事物起源的具体事件，比较少叙述的内容。例如，其对于眼睛早上看得更清，耳朵晚上听得更清的原因做了下述的说明，“眼睛是效仿太阳的存在。因此在晚上看不清。耳朵是效仿月亮的存在。可能是因为这个原因，晚上可以听到远处的声音。”



还有，“帽子高耸的模样，是仿照天的形态而设计的。衣服有两个袖子，是仿照人的形态而设计的。裙子有四角，是仿照地的形态而设计的。”，对于事物具备特定外型的原因，使用了“天地人”的概念进行说明。

对于具体的事物起源，当然也有一些叙述说明的部分。类书，在前近代的百科词典中，对于相关项目，一般先叙述了各事物的起源。在前近代的东亚社会中，市面上也有各种各样的类书在流通，事物起源相关的知识广为流传，这一观点应该是正确的。1803年，对于朝鲜出版的类书《儿戏原览》的情况，放在了“创始”这个篇章进行单独叙述，这里的“创始”就是起源的意思。

像宋代高承编撰的《事物纪原》这类型的类书，从书名上就明确表现了其内容与“起源”有直接的关系。《事物纪原》最初由217个项目构成，后来人们不断针对此作品进行增补，最终版有1764个项目。第55部的名称看起来有点奇怪，收录的项目一般标识为“事-物”。

对于《事物纪原》曾有这种评价“围棋和象棋，昆虫和动物，对于这些事物都一一地进行探究了”，这部作品大规模地收录了“事物起源的历史”。虽然对于《事物纪原》中收录的“起源”并没有明确的资料证明。类书具有从前代文献作品中摘取相关资料，并进行整理的属性，而《事物纪原》中的“纪原”两字，也包含了来源于前代文献作品记录的意思。

不确定张志渊是否阅读过《事物纪原》这部作品。但是，《事物纪原》的内容虽然部分来源于前代的文献作品，但也有一部分内容是来自之后的其他类书作品。朝鲜的学者们即使没有读过《事物纪原》这部作品，但对于其中收录的信息多少也会有所了解，这是一件很正常的事情。张志渊也不例外。

我们可以说张志渊在编撰《万国事物纪原历史》的时候，曾经有意识地，或无意识地使用了“类书”的传统文化元素。类书是通过收集前代文献的资料，并根据一定的标准进行分类，进行编撰的作品。在《万国事物纪原历史》的广告中，提到了信息的分类和收集，是以类书的基本属性为基础的。

考虑到大部分的类书都是按主题进行分类的，所以说《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具有类书的体系，这个说法也没有什么问题。无论是西村茂树或澁江保，还是《泰西事物起原》的编撰者们，都自然地使用了类书的传统结构。



在前近代韩国社会，不仅接受了中国类书的文化熏陶，在有需要的时候，还会直接进行类书编撰。从《大东韵府群玉》到《林下笔记》，编撰了多种多样的类书，其中部分作品有进行出版，并广泛流传开来。像《芝峰类说》这部作品，相关内容就曾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被多次引用，所以说前代的类书作品成为了撰写《万国事物纪原历史》时重要的参考资料。

张志渊也直接参与了类书的编撰。虽然在介绍张志渊的创作活动时已经提到过，他也参与了《增补文献备考》的编撰工作，这是一部以国家的制度和文化遗产为主要内容的作品。1906年完成了撰写，1908年出版的《增补文献备考》算是官撰类书的其中一种，共有16稿250卷，内容量十分之大。张志渊参与了“纂集”的编撰，在这部作品提交的名单中，可以看到有“前 内务主事 张志渊”的名字。

但张志渊具体执笔写了什么主题，对于这部分内容还不确定。我们可以推测，编撰了大量类书的经验，对于其撰写《万国事物纪原历史》中东方事物的内容会有一定的帮助。在《增补文献备考》编撰过程中，他可以直接使用之前已经具备的知识，或已经阅读过的资料。

张志渊也有可能是在编撰《万国事物纪原历史》的过程中，直接使用了《增补文献备考》的内容。虽然不能说其在创作过程中直接引用了《增补文献备考》这部作品，但是我们可以发现作品中有部分内容引用了《增补文献备考》的语句，而且出现了一定程度的错误。我们可以推测，这部分内容应该是本来在《增补文献备考》中就有误，而作者直接照搬了过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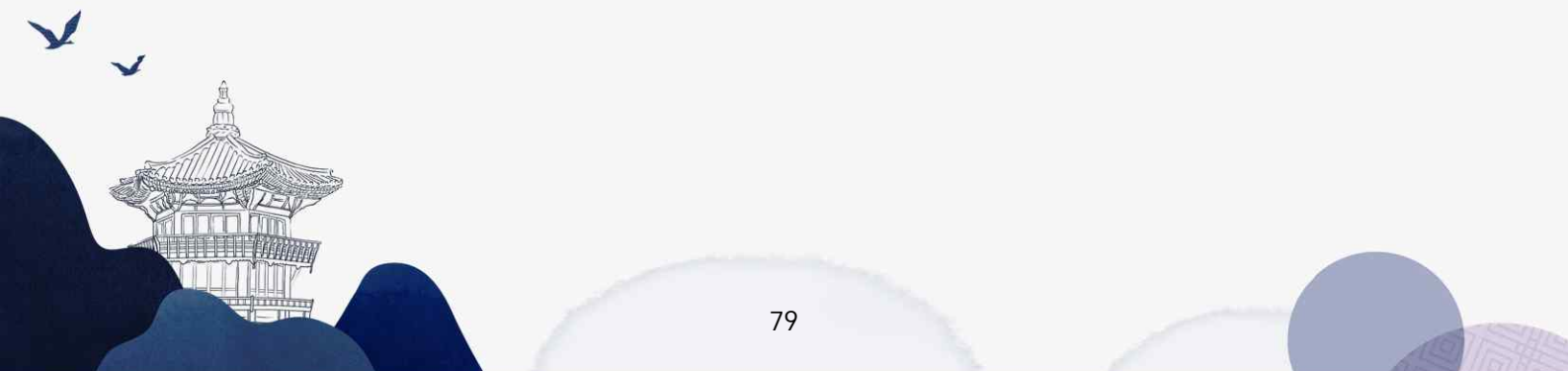
我们再来看一个例子。[1]是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的内容，[2]是从《增补文献备考》的书籍中引用的内容。在[2]中，前面标识了翻译内容，后面备注栏原文的汉文。如[1]所示，中宗20年，司成李纯首次制作了名为“日轮纯”的观天器，即天文观测工具。如[2]所示，“中宗20年，司成李纯在中国购买了《革象新书》，其中有名为“目轮”的天文观测工具。李纯参考了这本书籍，并进行了制作，制图十分精美。具备一定的观赏性。”

张志渊在“观天器”的项目中，撰写了上述语句，而在《增补文献备考》的叙述中，只包含了一些必须的基本信息。问题在于，他把“名曰目輪，純按書製進”这句话中的“目”字，错误地看成了“日”字，而且还把人名的“纯”字，错误地添加在了该工具名称之中。而这些错误，都是在引用《增补文献备考》的内容时，极其容易犯下的错误。



这节课，我们一起探究了在《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背景中，受到的传统文化元素的影响。在前近代东亚社会中，以《万物原始》或《事物纪原》这类型的类书为中心，“事物的起源”成为了学术研究的热门主题。作为传统学问人的张志渊十分熟悉以传统形式撰写的类书，而且还具有亲自参与官撰类书编撰的经验。

下节课，我们将基于之前学习过的外来文化元素和传统文化元素，对《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过程进行复原，并且探究其背后的学术意义。





9-5

《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过程及学术意义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一起探究了在《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背景中，受到的传统文化元素的影响。这节课，我们将对《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过程进行复原，并且探究其背后的学术意义。

之前我们研究了作者张志渊的创作活动，创作中的外来文化元素和传统文化元素，从而进一步探究了《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在完成编撰前的背景。现在，我们基于之前的研究内容，来一起试试对《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过程进行复原。

在前面我们曾提到了张志渊参考了除《泰西事物起原》以外的文献内容，所以在作品里有出现西方事物起源的相关叙述内容。在我们复原《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过程中，我们再来仔细地看一看相关的事例。还有，我们一起来思考一下《万国事物纪原历史》的学术意义。

为了更好地复原《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过程，我们先来整理一下哪些内容是可以被验证的，哪些内容是难以被验证的。

对于直接及间接的参考文献，首先是以日本作家澁江保撰写的原作为基础，在上海翻译的作品《泰西事物起原》。张志渊参考了这本书的知识体系结构，从而建立了《万国事物纪原历史》的体系，我们推断他通过这本书获得了很多西方事物起源相关的知识。在对于东方事物起源的叙述内容中，通过其直接列举的事例可得知，参考的文献有李睟光的《芝峰类说》和柳得恭的《京都杂志》。

对于《芝峰类说》这部作品，前面有提到其具有传统类书的特点。在《京都杂志》的第28章叙述了“风俗杂题”，并积极地使用了相关的内容。在张志渊的《万国事物纪原历史》发行之后，更有必要对其进行深入的研究。张志渊在1909年2月撰写了（京都杂志序），即《京都杂志》的序文，在其作品中，以《京都杂志》为基础，展现出了其想要写一部“风俗史”的决心。

除此之外，这部作品的多处内容都表明其还参考了韩国和中国的司书和类书，但很难说其直接参考且引用了这些作品的内容。因为在《万国事物纪原历史》的内容撰写中，并没有区分直接引用和转引自其他文献的内容。除了可以基于几处有明显错误的地方进行推测，对于特定的叙述内容，很难判断是直接引用原文献，还是像引用《增补文献备考》的内容一样，进行了转引。



现在有很多内容都表明，很难确认或推测这部作品的参考文献。特别是《泰西事物起原》中未曾包含的“西方事物的起源”相关的内容，很难找到这部分内容的出处。在第22章机械的最后一个项目“机器”中，对这部分内容的固有名词标记做进一步研究的话，可以发现其有极大的可能性不是参考《泰西事物起原》这部作品，而是参考使用了其他作品的内容。虽然现在还不确定是哪部文献作品。

但是，从张志渊整体的著作内容来看，我们可以下这个结论，这种知识的引用很有可能体现在笥记或笔记之中。所谓“笥记”或“笔记”，是一种读书笔记或读后感类型的文章类型，当作者读完一本书或一篇文章之后，会摘抄觉得有必要的语句，并且备注自己感想。

张志渊有持续地摘抄报纸或杂志刊登的新闻，以撰写“草录”，有时会做一些剪报。在汇集了张志渊著作内容的《张志渊全书》的第7卷和第8卷中，收录了其编写的“笥记”，“笔记”以及新闻草录等资料。对于这项内容的讨论，需要从知识的来源层面进行确认。

收录于《张志渊全书》的第7卷和第8卷的资料，即，张志渊编写的笥记或笔记这些资料，没有固定的形式，通过以下两种类型，可以大概推测出使用其的可能性。

左侧根据项目写了摘要的信息，右侧摘抄了原文，下面记录了日期。在和右侧形式一致的资料中，可以看到有些事例除了日期，还记录了报纸或杂志的名称。需要注意的一点是，在其提到的报纸之中，也有在中国发行的报纸。

从时期上来看，张志渊在海参崴停留的期间，还有包括其在上海停留的期间，我们都需要关注。也不确定张志渊在海朝新闻社是否只是撰写新闻。从他当时的日记来看，他应该在当地找到且阅读了多种多样的书籍。

这是题目为“官文草录”的资料的部分内容。这是他在1908年从海参崴到上海停留期间编写的作品。对于其命名为“军用空中船”的内容，所谓的空中船就是在空中移动的船，即记录了从气球到飞机的种种交通手段。我们看看右侧原文下方标识的译文。

在最近的军用品中，分为繫留轻气球，游动轻气球和空中飞船这三个类型。第一个类型的发展已经基本到了成熟期，第二和第三个类型当时还没有完全发展起来。在英国，投入了60万韩元的经费，发展了搭载规模达5000人的飞船。每1艘飞船都配有操纵者1人，工夫100人，士官200人，以及在搭乘时必要的武器。最困难的事情就是操纵的熟练程度。



繫留轻气球在当时已经十分发达，但游动轻气球，即移动类的工具，以及空中飞船还没有取得充分的发展。在英国为了推进其发展，做了很大的努力，在作品中进行了具体的记载。但很难确认是否在英国培训了相关人员，对特定类型的飞船进行了制作。但是，有类似的信息刊载在当时的报纸上，也是一件很常见的事情。

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对于“空中飞船”这个项目的叙述，与《官文草录》中摘抄的新闻内容十分相似。我们来读读看。

空中飞船是最近英国人发明的事物。每1艘飞船会配置操纵者1人，工夫100人，士官200人以及搭载了许多的炮弹和武器，在作战的时候，也可以攻打敌营。现在英国投入了60万韩元的经费，进行试验和制造，结构并不完善，现在也还在研究之中。

推断英国人为“发明者”，这个结论看起来有些奇怪，但是“60万韩元的经费”这一项部分的表述值得关注，不可否认的是这一内容应该与《文官草录》的记录内容存在着很大的关系。发明的时间节点被记录为“近日”，这一点有些奇怪，在其他的作品中，相关的时间节点都记录为几年或者几年前。根据《官文草录》的记录显示，在相关内容中并没有出现除“近日”之外的其他信息，所以好像作者也只能这样叙述。

检阅也是对《万国事物纪原历史》的创作过程产生影响的因素之一。检阅一般会要求对于涉及政治或社会风俗等敏感问题的片段进行删减，而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相较于删减，反而是进行了内容的增补。

左侧是《张志渊全书》中的原稿的封面。完成检阅后，会盖上允许出版的印章，这里也可以看到这个章。这个不是简单的手抄本，而是为了检阅而提交的初稿版本。右侧是在检阅过程中，提出的具体修改要求的事例。另附纸张说明了修改的要求，检阅官是小田省吾。后来，其成为了京城帝国大学的教授，也是一名史学家。让我们来看看小田省吾的要求是如何体现在作品内容中的。

在“镜子”的项目中，有补充关于镜台的起源相关的内容。首先，在开头部分有提到《潜确类书》和《天中记》中记录的镜子的起源。张志渊直接引用了《潜确类书》和《天中记》的内容，也有可能转引其他文献的相关内容。这一点我们在前面也提及过。接下来用朝鲜的事例对“箕子鏡”进行了讨论。



在下面有反映小田省吾要求的段落。提到了日本的三神器，而镜子就是其中之一。虽然在其他项目中也提到了神话内容，但并不会那么不自然。反而可以说是具有补充的意义。

对于镜子和在街上名为“草之剑”的刀的内容进行了长篇的叙述，多少有点奇怪。这应该是为了满足检阅官的要求，对于书籍作品的完成度帮助并不大。但是，如果删除了特定的内容，也很难说会不会对作品的质量有所影响。我们再来看看日本的事例下面对西方镜子的记录。

《万国事物纪原历史》的意义要怎么说呢？我们在课程的开头已经提到过几个对于作品的评价，虽然其中有部分内容确实有点言过其实。我们现在基于作者创作的背景和过程再来看看这本书的意义和其具有的局限性。《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具有的历史脉络，从学术的层面来看，是一本具有意义的书。

第一，这本书可以说是在“外来知识传入的时期，一部传统知识成果的作品”。整理翻译外国的文献，或者从外国的学校学习的知识当然也是一件很有意义的事情，但如果仅限于此，那么就很难取得像这部作品一样的地位和成果。

第二，成为“世界或东亚层面的知识流通案例”。正如我们在前面课程中提到的，书本的类型和语言不同，从荷兰开始，经过日本和中国，最后到韩国，我们可以将其解读为一个知识流通的案例。

第三，这部作品“展现除了传统类书过渡时期的面貌”。这一时期以语言词典和百科词典为代表的词典的各种近代词典开始登场，而传统的“类书”又是怎么破局的，这些都在这部作品中有所体现。

第四，“在初期国学的比较史分析成为可能的文献作品”。学问的客观性是比较史分析的必须要素。《万国事物纪原历史》在那个时期在学术界并没有产生很大的影响。尽管无法完全实现，但为比较史分析提供了可能性。

但是，《万国事物纪原历史》这部作品也具有不少的局限性。从各方面来看，这本书都是一部未完成的作品。虽然名为“万国”，但是其涉及的范围仅限于东亚和欧美，而且不正确的，甚至是错误的叙述内容也不少。





作者张志渊并不满足于此。据《年报》的内容显示，1916年曾试图对作品进行修改。但是，最后却无法实现，最终成为了像《朝鲜儒教渊源》或《大东诗选》一样的，具有局限性的韩国文学作品。1916年，日本留学生群体开始活跃起来，而具备传统学问背景的张志渊在“万国”这一问题上，很难取得超越他们的成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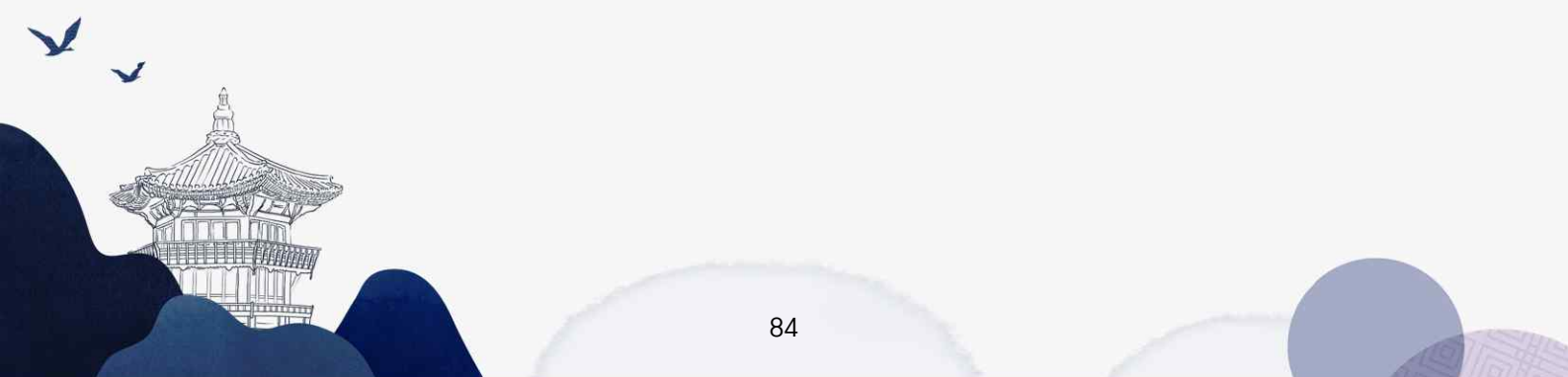
在《万国事物纪原历史》中存在不正确的，甚至错误的叙述，所以其在完成度上面，具有局限性。但是这种局限，已经突破了当时20世纪初期以“常识”为基础的局限性。尽管在当今社会可以知道这并不是事实，但有时会觉得这种错误的内容反而成为了了解那个时代的一个窗口。

作为反映20世纪初期常识的事例，首先是对日本片假名文字的发明者进行叙述的内容。日本检阅官没提出什么意见，得知大概在日本这也是广为流传的知识。实际上，在当时的教科书资料中，也能找到相关的知识内容。

再看看其他的事例，我们来看看对“阿拉伯数字”的理解这个事例。根据叙述内容显示，阿拉伯数字来源于希腊文字，而此处相关内容被记录为阿拉伯数字是阿拉伯人创造的。但是，时至今日，阿拉伯数字是从印度传入的这一事实已经广为人知，而阿拉伯人在其中只是发挥了中介的作用，这一事实也被记录于教科书之中。通过探究与此相仿的事例，可以有助于我们理解20世纪初期的韩国，乃至全世界。

在本次的课程中，我们学习了《万国事物纪原历史》是一部怎样的作品，以及这部作品的创作过程。并且探究了这部作品的学术史意义和局限性。但如果不看具体内容的话，仅看概括性内容的话，是难以对作品产生自己的理解和感想的。

在下节课中，我们将阅读这部作品的某些部分，并思考其背后的意义。期待大家可以参与《万国事物纪原历史》的主观理解这门课程，也将包括今天课程所涉及的主题。谢谢大家。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중 《만국사물기원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백과사전에 속하는 책 가운데 최초로 간행된 것이다.
- ② 근대식 학교의 교과서로 편찬된 책이며, 한국인이 독자적으로 저술한 최초의 세계사이다.
- ③ 이 책은 다양한 지식을 “분류수집”했다는 면에서 ‘유서(類書)’의 전통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④ 저자인 장지연은 전통적인 학문과 한문 문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근대적인 언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정답 ②

해설 《만국사물기원역사》는 편찬 동기를 직접 밝혀 놓은 서문은 없지만, 신문 광고를 통해 대략적인 편찬 동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상 독자로 신사, 교육가, 연설가, 신문기자, 학생을 고려한 듯합니다. 이 가운데 학생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교의 교과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황성신문사에서 간행한 점을 고려하면, 교과서로 편찬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02 다음 중 장지연의 저술에 속하지 않는 것은?

5분

- ① 여자독본
- ② 일사유사
- ③ 동문선
- ④ 조선유교연원

정답 ③

해설 장지연은 전통적 학문 배경을 지닌 지식인이면서도 근대적인 학술 및 교육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저술을 남긴 것은 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독본》(1908)은 여성 교육을 위한 교과서 성격의 저술입니다. 《일사유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의 생애를 다룬 전기집인데, 매일신보에 연재한 원고를 모아 1922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조선유교연원》(1922)은 조선 유학의 역사를 정리한 저술입니다. 《동문선》은 서거정이 왕명을 받아 1478년에 편찬한 시문선집입니다. 장지연 또한 역대 명시를 모은 시선집을 편찬한 바 있는데, 《대동시선》(1918)이 그것입니다.

03 다음 중 장지연의 해외 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1896년에 민영환과 함께 러시아 황제 대관식의 사절로 참여하였다.
- ② 1905년에 민영기가 이끄는 일본시찰단에 참여하여 궁내성, 신문사, 은행 등을 방문하였다.
- ③ 1908년에 해조신문사의 초빙을 받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문 편집에 참여하였다.
- ④ 1908년에 상하이에서 출판사를 방문하여 다수의 책을 열람하고 구입하였다.

정답 ①

해설 장지연은 1905년과 1908년에 해외 체험을 한 바 있으며, 일본, 러시아,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사신 또는 사절로 활동한 일은 없습니다. 1896년의 러시아 황제 대관식 사절단에는 민영환, 윤치호, 김득련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04

5분

《만국사물기원역사》는 서양의 사물에 관한 지식을 다수 포함한 문헌이므로, 전통적인 지적 배경을 갖춘 저자 장지연이 편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지연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 서양에 관한 지식을 담은 문헌을 참고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의 문헌 가운데 한자 표기와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장지연이 편찬 과정에서 직접 참고했을 가능성이 큰 문헌은 무엇인가?

- ① 서국사물기원
- ② 백학원시
- ③ 서양사물기원
- ④ 태서사물기원

정답 ④

해설 1902년 중국 광저우에서 간행한 《태서사물기원》은 일본의 시부에 다모쓰가 편찬한 《서양사물기원》의 번역본입니다. 서양의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서양사물기원》에서는 주로 카타카나로 표기했지만, 《태서사물기원》에서는 음을 이용하여 한자로 표기했습니다. 《태서사물기원》의 한자 표기는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분류와 배열을 반영하는 항목 구성에서도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5

10분

《만국사물기원역사》는 동양과 서양에서의 사물의 기원을 함께 다룬 문헌이다. 따라서 그 편찬자는 동양의 사물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기록하는 전통적인 방식인 '유서(類書)'의 편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실제로 저술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장지연은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간행한 '유서'의 편찬에 참여한 바 있는데, 이 문헌의 이름은 무엇인가?

정답 증보문헌비고

해설 《증보문헌비고》는 1906년에 완성되고 1908년에 간행된 일종의 관찬 유서입니다. 장지연은 16고 250권의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진 이 책의 편찬에 '찬집'의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비록 어떤 주제의 편찬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국사물기원역사》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증보문헌비고》의 문장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짐작되는 오류들은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주제

《만국사물기원역사》는 전통적인 동양의 지식과 근대적인 서양의 지식을 함께 정리한 문헌이며, 문화사적인 차원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1909년의 지식'과 '현재의 지식'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현대 독자의 관점에서는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포괄하는 지식의 범위가 '백과사전'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의 지식인'이라는 위치에서 《만국사물기원역사》에서 다룬 28장 498항목에서 부족한 주제에 어떤 것이 있는지 지적하고, '백과사전'의 미래가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 논해 보자. (60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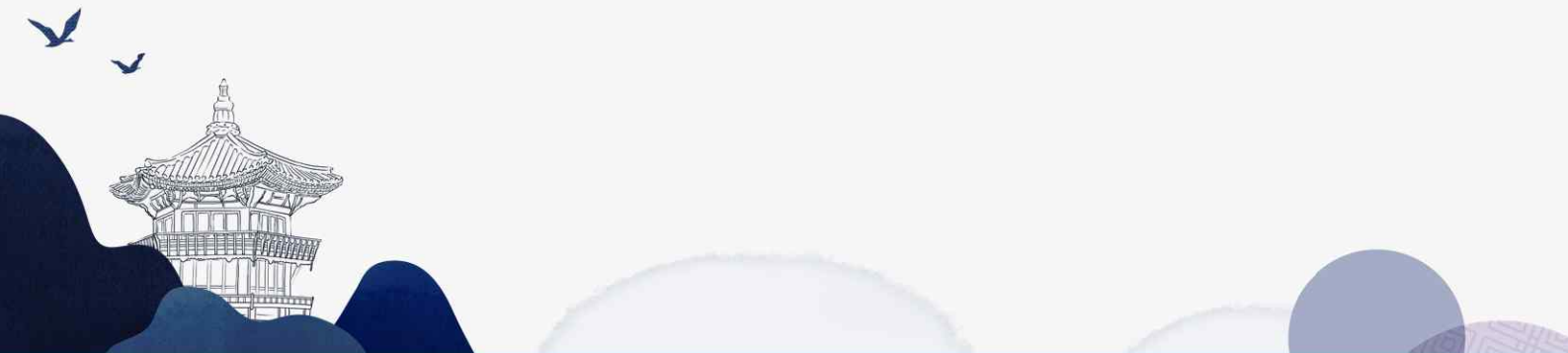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만국사물기원역사》는 제목에서부터 '만국의 사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 기원에 대한 지식을 모은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시대와 편찬자 자신의 한계로 인해 상당히 제한된 지역의 지식과 정보만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9장 '의장'의 사례처럼 동양의 사물만 다룬 장이나 항목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적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사물'들을 서술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백과사전'의 미래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국사물역사》에 누락된 지식과 정보를 보충하는 것이 한 가지라면, 종이책의 한계를 지닌 '백과사전'의 형식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종이책의 범위를 벗어나면 새롭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만국사물기원역사, 전통과 근대의 지식을 아우른 세계 만물 백과사전, 장지연 저, 황재문 역해, 한겨레출판, 2014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저술 배경과 특징을 서술한 해제를 참고하면, 이번 강의의 내용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를 찾아 읽어보면, '1909년의 조선 지식인'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한중 유서문화 개관, 최환,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8

동아시아의 유서는 동아시아 백과사전의 전사(前史)에 해당합니다. 동아시아 유서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문

- 황재문,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성립 과정에 대한 재검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 104집, 2018

《만국사물기원역사》의 편찬 배경과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다룬 논문입니다. 외래 문헌의 영향이나 근대적 지식의 수록 등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